

《靈樞·根結》에 대한 研究

장종열·금경수* 정현영·김남수*

*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정보학과

ABSTRACT

Geungyul(根結) means roots and nodes of meridians.

If human body gets damaged by energy which each seasons has, the meridians get some troubles.

Healing for symptom, meridians consist of root, stay, follow, inpouring and node of acupuncture points should be in harmony.

1. This chapter explain roots and node parts of each meridian, acupuncture points name and root, stay, follow, inpouring of acupuncture points which in arm and leg of three Yin and Yang.

2. The opening, closing, axis function, the symptom, and the needling of both meridians of Yin and Yang are explained.

3. The method that predicts the rise-and-fall of visceral energy and the time of death by using an order of pulse and intermittent pulse is explained.

4. It is explained that since the physical condition of the rich and the poor are different, the method using a needling for each person to be healed, such as the deep-and-shallow and the quick-and-slow, are different.

5. It is explained that the excess and the deficiency in the energy of shape should be considered when a acupuncture is given.

Key Word : roots and nodes of meridians(根結), the opening-closing-axis function(開闔樞)

접 수 : 2000년 4월 27일

채 택 : 2000년 5월 5일

교신저자 : 장종열,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0653-850-6847)

I. 緒論

本 篇에서는 人體內的 五藏六府와 外部 氣候와의 關係, 三陰三陽經의 根結 部位와 穴名, 手足三陽經의 根·流·注·入하는 腧穴, 陰經과 陽經의 開·闔·樞 作用과 각각의 病證과 治療, 脈搏의 次數와 간헐적으로 멈추는 次數를 가지고서 藏氣의 盛衰와 死期를 예측하는 방법, 鍼灸 治療時에 고려해야 할 住居環境과 形氣의 有餘·不足 등에 관하여 論하고 있다. 또한, 治療할 때에 가장 念頭해야 할 三陰三陽經脈의 氣가 根本하는 곳과 結聚되는 곳에 대하여 論하고 있으므로 篇名을 「根結」이라고 하였다.

《靈樞》의 「根結」은 《靈樞》 2권 제 5에 篇述되어 있고, 《甲乙經》¹⁾에는 1권 「氣息周身五十營四時日分漏刻 第九」와 2권 「經脈根結 第五」와 4권 「經脈 第一上」과 5권 「針道自然逆順 第六」에 나누어져 있으며, 《太素》²⁾에는 10권 「經脈根結篇」과 14권 「人迎脈口診篇」과 22권 「刺法篇」에 나누어져 있고, 張景岳의 《類經》³⁾에는 5권 脈色類 4장의 「五藏之氣 脈有常數」와 9권 經絡類 30장의 「諸經根結開闔病刺」와 22권 針刺類 56장의 「貴賤逆順」에 分屬되어 있다.

本 篇은 내용에 따라 크게 4장으로 나눌 수가 있다. 제 1장은 「根結의 重要性」에 관하여, 제 2장은 「足三陽三陰經의 根結」로 1절은 「足三陽經」, 2절은 「足三陰經」에 관하여, 제 3장은 「陰陽의 多少」로 1절은 「手足三陽의 根·溜·注·入」, 2절은 「代脈과 藏

氣絶」에 관하여, 제 4장은 「虛實補瀉의 法則」으로 1절은 「體質에 따른 鍼灸 治療法」, 2절은 「補瀉法」에 관하여 論하였다.

이와 같이 本 篇은 病證을 治療할 때에 참고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內包하고 있지만 文章이 古文으로 되어 있고 많은 부분이 省略되어 있어 理解하기가 몹시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註釋을 參照하지 않고서는 본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대 註釋家들의 註釋을 比較·研究하여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註釋을 택하여 이를 바탕으로 國譯함으로써 本文의 本來 趣旨를 보다 명확히 하고, 校勘을 통하여 版本의 誤謬를 바로잡으며, 또한 西洋醫學의 어떠한 疾患이 本 篇과 聯關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本 論文의 研究에 착수하게 되었다.

II. 研究方法 및 資料

本 篇의 內容을 쉽게 理解할 수 있도록 原文을 內容別로 4장으로 나누었고, 原文과 各家의 註釋에는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懸吐를 하였으며, 校勘·字句解·較註·考察·直譯·意譯·結語의 順序대로 研究하였다.

가. 原文은 《聚珍倣宋版本》을 底本으로 하였다.

나. 景岳의 《類經》⁴⁾과 任의 《黃帝內經章句索引》⁵⁾, 《靈樞經校釋》⁶⁾을 參照하여 그 內容을 4장으로 나누었다.

1) 皇甫謐, 《鍼灸甲乙經》, 宏業書局印行, 台北, 1976.

2)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3) 張介賓, 《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82.

4) 註3)과 同.

5)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6)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 다.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原則으로 하였으며, 가능한 現代化하도록 노력하였다.
- 라. 校勘에 引用한 文獻은 <표.1> 과 같다.
- 마. 較註는 <표.2> 의 14種 研究資料의 註釋들을 比較하여 意味가 같은 것을 모아서 그 中 가장 適合한 것을 中心으로 國譯하고 '●'으로 표시하였으며, 註釋의 原文은 脚註처리하여 參考하

- 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 바. 直譯은 原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 사. 本 研究에 사용한 符號는 校勘에 '0', 字句解에 '(00)', 較註에 '[00]', 引用文獻에 '《○○》', 文獻의 章節에 '「○○」', 脚註는 '1), 2), 3)...'의 일련번호로 표시하였다.

<표.1> 校勘에 引用한 文獻 및 略稱

| 번호 | 書名 | 略稱 | 備考 |
|----|------------------|-----|--------------|
| 1 | 明成化十年甲午熊氏種德堂刊本 | 熊本 | 《靈樞經校釋》에서 인용 |
| 2 | 明綉谷書林周曰校重刊本 | 周本 | |
| 3 | 明金陵尙義齋刊本半葉十行行二十字 | 金陵本 | |
| 4 | 日本旧抄本北京中醫研究院藏 | 日抄本 | |
| 5 | 日本田中清左衛門本 | 日刻本 | |
| 6 | 黃以周《內經針刺》光緒甲申校刻本 | 黃校本 | |
| 7 | 黃帝內經太素 | 太素 | |
| 8 | 黃帝三部針灸甲乙經 | 甲乙 | |
| 9 | 黃帝內經素問 | 素問 | |
| 10 | 靈樞注證發微 | 馬注本 | |
| 11 | 靈樞集注 | 張注本 | |
| 12 | 黃帝內經校注語譯 | 語譯 | |
| 13 | 靈樞經校釋 | 校釋 | |

<표.2> 研究資料

| 番號 | 註釋家 | 時代 | 註釋書名 | 略稱 |
|----|----------|---------|------------|----|
| 1 | 楊上善 | 隋 | 黃帝內經太素 | 楊 |
| 2 | 馬蒔 | 明(1580) | 靈樞注證發微 | 馬 |
| 3 | 張介賓 | 明(1624) | 類經 | 景岳 |
| 4 | 李仲梓 | 明(1642) | 內經知要 | 李 |
| 5 | 張志聰 | 清(1672) | 靈樞集注 | 張 |
| 6 | 黃元御 | 清(1756) | 靈樞懸解 | 黃 |
| 7 | 丹波元問 | 日(1808) | 素問識 | 丹波 |
| 8 | 章楠 | 清(1825) | 靈素節注類編 | 章 |
| 9 | 山東省中醫研究所 | 中(1962) | 靈樞白話解 | 白話 |
| 10 | 南京中醫學院 | 中(1959) | 黃帝內經靈樞譯釋 | 譯釋 |
| 11 | 郭藹春 | 中(1981) |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 語譯 |
| 12 | 河北醫學院 | 中(1982) | 靈樞經校釋 | 校釋 |
| 13 | 山東中醫學院 | 中(1984) | 鍼灸甲乙經校釋 | 甲校 |
| 14 | 宗全和 | 中(1988) | 黃帝內經靈樞 | 宗 |

Ⅲ. 研究 內容

第 1章 根結의 重要性

【原文】

岐伯曰¹⁾ 天地相感하고 寒暖²⁾相移하니 陰陽之道³⁾는 孰⁽¹⁾少孰多⁽¹¹⁾오 陰道偶이며 陽道奇^{4)[2]}이니 發於春夏하면 陰氣少하고 陽氣多⁵⁾하야 陰陽不調하니 何補何瀉오 發於秋冬하면 陽氣少하고 陰氣多⁶⁾하야 陰氣盛 而陽氣衰 故로 莖葉枯槁⁽²⁾하고 濕雨下歸⁷⁾하야 陰陽相移⁸⁾하니 何瀉何補^[3]오 奇邪離經은 不可勝數^[4]니 不知根結⁽³⁾이면 五藏六府가 折⁽⁴⁾關敗⁽⁵⁾樞하야 開⁽⁶⁾闔而走⁽⁷⁾하야 陰陽大失하니 不可復⁽⁸⁾取^{(9)[5]}라 九鍼之玄⁹⁾⁽¹⁰⁾은 要在終始¹⁰⁾ 故로 能知終始¹¹⁾면 一言而畢⁽¹¹⁾이나 不知終始면 鍼道咸⁽¹²⁾絶^[6]이니이다

【校勘】

- 1) 岐伯曰 ; 《甲乙》 2권 제 5에는 ‘黃帝曰’로 되어 있다.
- 2) 寒暖 ; 《太素》 10권 「經脈根結」에는 ‘寒煖’으로, 《甲乙》 2권 제 5에는 ‘寒熱’로 되어 있다.
- 3) 陰陽之道 ; 《甲乙》 2권 제 5에는 ‘陰陽之數’로 되어 있다.
- 4) 陰道偶 陽道奇 ; 《太素》 10권 「經脈根結」과 《甲乙》 2권 제 5에는 ‘陰道偶而陽道奇’로 되어 있다.
- 5) 陰氣少 陽氣多 ; 《太素》 10권 「經脈根結」과 《甲乙》 2권 제 5에는 ‘陰氣少而陽氣多’로 되어 있다.
- 6) 陽氣少 陰氣多 ; 《太素》 10권 「經脈根結」과 《甲乙》 2권 제 5에는 ‘陽氣少而陰氣多’로 되어 있다.
- 7) 濕雨下歸 ; 《太素》 10권 「經脈根結」에

는 ‘濕而下⁷⁾滯’으로 되어 있다.

- 8) 陰陽相移 ; 《甲乙》 2권 제 5에는 ‘陰陽相離’로 되어 있다.
- 9) 九鍼之玄 ; 《太素》 10권 「經脈根結」과 《甲乙》 2권 제 5에는 ‘九鍼之要’로 되어 있다.
- 10) 要在終始 ; 《太素》 10권 「經脈根結」과 《甲乙》 2권 제 5에는 ‘在于終始’로 되어 있다.
- 11) 故能知終始 ; 《太素》 10권 「經脈根結」에는 ‘故知終始’로, 《甲乙》 2권 제 5에는 ‘能知終始’로 되어 있다.
- 12) 鍼道咸絶 ; 《太素》 10권 「經脈根結」에는 ‘鍼道絶滅’로, 《甲乙》 2권 제 5에는 ‘鍼道絶’로 되어 있다.

【考察】

〔校勘에 대한 考察〕

▶ ‘孰’字는 疑問代名詞로서 사람을 指稱하여 質問할 때는 ‘誰’와, 事物을 指稱하여 質問할 때는 白話文의 ‘哪個’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本 篇에서는 後者의 ‘어느 것’, ‘어떤 것’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何’字는 《內經》 가운데서 487차례나 나올 만큼 가장 광범위하고 중요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本 篇에서처럼 주로 事物을 指稱할 때 ‘무엇’의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太素》의 注釋에서는 岐伯이 黃帝의 質問을 기다리지 않고 根結篇이 쓰이게 된 이유, 卽 凡例를 이야기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甲乙》의 原文에는 ‘岐伯曰’이 ‘黃帝曰’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甲乙》은 《黃帝內經》의 內容 構成이 黃帝와 그의 臣下들 사이의 問答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疑問代名詞인 ‘孰’과 ‘何’가 있는 것으로 보아 ‘岐伯曰’을 ‘黃帝曰’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

각했던 것 같다.

《甲乙》의 原文처럼 ‘黃帝曰’로 바꾸어도 전체적인 文章의 의미는 통하지만, ‘岐伯曰’ 다음의 內容들이 대체적으로 質問보다는 說明에 가까우므로 앞 文章에 ‘黃帝’의 質問이 省略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思料된다.

▶‘寒暖’에 관하여

‘暖’, ‘煖’, ‘熱’은 모두 ‘陽’의 氣運을 표현한 말이므로 ‘暖’, ‘煖’, ‘熱’중 어느 것으로 하든지 간에 의미는 서로 通할 것으로 思料된다.

▶‘陰陽之道’에 관하여

《甲乙》은 ‘陰陽之數’라고 하였는데, 뒷 문장에서 ‘陰의 道는 짝수로, 陽의 道는 홀수로 작용한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陰陽之數’로 하여도 無妨할 것으로 思料된다.

▶‘濕雨下歸’에 관하여

《太素》에는 ‘濕而下_レ滯’으로 되어 있는데, ‘濕氣가 땅속으로 流入되어 축축하다.’는 말로서 서로 같은 의미이다. 또한, 蕭延平은 ‘_レ滯’은 ‘浸’과 같은 것이니 ‘漬(담글지)’의 뜻이라고 하였다.

▶‘相移’에 관하여

《甲乙》에는 ‘相離’로 되어 있는데 ‘離’字에는 ‘여럿이 뒤섞여서 어긋난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本文에서 말하고자 하는 意味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므로 ‘相移’를 ‘相離’로 하여도 無妨할 것으로 思料된다.

[較註에 대한 考察]

▶‘發於春夏’와 ‘發於秋冬’의 ‘發’에 관하여

楊 等은 ‘四時에 病이 發病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張은 ‘사람의 陰陽과 開闔의 機能이 天地自然의 四時에 感應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뒤에서 어느 것을 補하고 瀉하느냐

는 물음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楊 等이 말한 ‘發病’으로 解釋하는 것이 全體的인 文章의 흐름상 좀 더 타당할 것으로 思料된다.

▶‘奇邪離經’에 관하여

楊은 ‘風寒暑濕이 經絡을 侵犯하여 지나가는 것’, 馬는 ‘非正常的인 邪氣가 이쪽에서 感觸되어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 景岳은 ‘非正常的인 邪氣가 흘러 들어와 傳하여져 一定하지 않은 것’, 張은 ‘非正常的인 邪氣가 經絡에 侵入하여 大絡으로 흘러가 奇異한 病이 발생하는 것’, 黃은 ‘非正常的인 邪氣가 法則을 벗어나서 흘러 넘치는 것’, 白話·校釋은 ‘非正常的인 邪氣가 經絡으로부터 藏府로 깊이 들어가 一定한 곳이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 語譯은 ‘非正常的인 邪氣로 因하여 病에 罹患된 것’이라고 하였다.

風, 寒, 暑, 濕, 燥, 火는 六氣라고 한다. 六氣라는 것은 自然 氣候變化의 正常的인 現象이다. 그러나, 氣候變化의 太過와 不足으로 因하여 보통의 상황과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六淫이라고 한다.

六淫이란 外感病의 主要한 發病 原因이 되고, 六淫이 病을 일으키는 것은 대개 季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봄에는 風病, 여름에는 暑病, 장마철에는 濕病, 가을에는 燥病, 겨울에는 寒病이 많은 것 등이다.

이러한 것들이 發病季節의 一般的인 規律이다. 그러나, 氣候變化의 複雜性和 病人體質의 感受性이 같지 않으므로 같은 季節에 性質이 다른 外感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感受되는 邪氣도 완전히 단순할 수가 없게 된다.

各 注釋家들이 말한 것들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內包하고 있는 意味는 大同小異하므로 ‘奇邪離經’은 ‘四時의 氣候와 相反되는 邪氣, 즉 非正常的인 邪氣가 人體에 侵入하여 經脈을 따라서 안에 있는 藏府에까지 깊이 들어가 그 사이를 제멋대로 흘러 다니면서 여러 가지 疾病을 일으키는 것’으로 解釋을 하는 것이 本篇의 文義上 가장 타당할 것으로 思料된다.

▶‘根結’에 관하여

楊은 ‘根은 뿌리이고 結은 매어있는 것’, 馬는 ‘脈氣가 시작하는 곳이 根이고 歸結하는 곳이 結’, 《鍼灸大辭典》은 ‘脈氣의 根本이 되는 곳이 根이고 結聚되는 곳이 結’이라고 하였고, 張은 ‘六氣가 六經의 標本에 交合되는 것’이라고 하여 앞의 注釋家들과는 表現을 달리 하였는데 本篇의 2章에서 根本이 되는 穴자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張이 말한 것은 다소 文義에 符合되지 않는 것으로 思料된다.

▶‘開闔樞’에 관하여

(開闔樞의 概念은 워낙 광범위하고 어려워서 한마디로 定義를 내리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金秀烈 氏의 論文〈傷寒論 六經과 內經 三陰三陽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를 참조하여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開·闔·樞는 經脈의 生理 作用인 세 가지 특징을 말한 것이다.

陽經에서는 太陽經脈이, 陰經에서는 太陰經脈이 開가 되는데, 開는 상대적으로 淺表部位에 있어서 外界와의 連繫에 더욱 接近하여 開放의 作用을 한다.

陽經에서는 陽明經脈이, 陰經에서는 厥陰經脈이 闔이 되는데, 闔은 상대적으로 身體 內部的 深層에 있어서 開闔과 收斂의 作用을 한다.

陽經에서는 少陽經脈이, 陰經에서는 少陰經脈이 樞가 되는데, 樞는 상대적으로 表裏 사이에 있어서 戶樞作用을 갖추고 있다.

또한, 開·闔·樞는 陰陽 氣運의 多少에 따른 人體의 生理代謝를 抽象적으로 문짜(扉)과 지도리(樞)의 作用에 比喩하여 설명한 것으로 人身의 表裏內外 配屬關係에서 開는 外表, 闔은 內裏, 樞는 表裏內外之間을 主宰하며, 陰陽 氣運의 出入代謝의 側面에서 開는 外出, 闔은 內入, 樞는 出入의 調節으로써 氣化出納代謝를 概括한다.

開·闔·樞의 生理 機能은 陽化氣의 機能代謝 卽 陽氣의 全身 運行(運化), 貯藏(吸收), 調節과 陰成形의 物質代謝 卽 陰血의 全身 運行(運化), 貯藏, 調節의 兩面에서 볼 수가 있으며, 이는 卽 陰陽氣化出納代謝의 重要한 機轉이 된다.

楊은 ‘關’을 ‘開’의 의미로서, 다른 注釋家들은 ‘關’을 ‘開闔’의 의미로서 말하고 있는데, ‘關’은 ‘국경이나 기타 중요한 길목에 설치하여 출입하는 사람을 조사하는 문’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本篇의 全體的인 文章의 意味上 ‘關’을 ‘開闔’의 의미로서 解釋을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思料된다. 참고로 楊이 注釋한 『太素』에는 ‘開闔樞’를 전부 ‘關闔樞’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折關敗樞 開闔而走’는 ‘開闔의 正常的인 作用이 훼손되고 樞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精氣를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精氣가 밖으로 새어나와 陰陽이 균형을 잃게 된다.’라고 解釋을 하는 것이 가장 適當할 것으로 思料된다.

▶‘要在終始’에 관하여

楊·景岳·黃은 ‘要點은 終始篇에 있다.’고 하면서 또한 ‘終始’를 ‘根結’이라고 하여 애매하게 表現을 하였고, 馬는 ‘要點은 「終

始篇」에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였으며, 張은 ‘經脈血氣의 시작과 끝이다.’고 하였다.

그런데, 「終始篇」을 살펴보면 ‘終始’란 제 1篇에서 9篇까지를 總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事物의 基本이 되는 數는 1에서 시작하여 9에서 끝나므로 「終始篇」이라고 한 것이다. 「終始篇」은 9篇까지의 總括로서 寸口와 人迎脈診의 比較, 十二經脈의 調和, 刺鍼하는데 있어서의 深淺 分類, 陰陽經脈의 補瀉法, 足에 있어서의 脈動部位, 刺法의 例, 補瀉의 實際 治療技法, 上半身과 下半身の 取穴法, 體質과 季節에 따른 取穴法, 痛痒과 刺鍼하는 깊이, 本治와 標治, 熱厥과 寒厥, 鍼治療法의 注意事項과 總括, 三陰三陽 脈氣의 杜絶 等 주로 鍼治療를 할 때 참고해야 할 重要한 內容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本 篇에서 말하는 ‘鍼道’는 모두가 「終始篇」의 內容을 따른 것이므로 ‘要在終始’는 ‘要點이 「終始篇」에 있다.’라고 解釋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思料된다.

【直譯】

岐伯이 말하기를, “天地가 서로 感應하여 寒暖이 서로 옮겨가는데 陰陽의 道는 어느 것이 적고 어느 것이 많겠습니까? 陰의 理致는 짝수로, 陽의 理致는 홀수로 作用하니 봄과 여름에 病이 發生하면 陰氣는 적고 陽氣는 많아서 陰陽이 均衡을 잃게 되므로 어느 것을 補하고 어느 것을 瀉하겠으며, 가을과 겨울에 病이 發生하면 陽氣는 적고 陰氣는 많아서 陰氣는 旺盛하고 陽氣는 衰殘해지므로 줄기와 잎이 마르고 濕氣가 땅속으로 내려가 陰陽이 서로 자리를 옮겨가니 어느 것을 瀉하고 어느 것을 補하겠습니까? 非正常的인 邪氣가 經絡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은 可히 數를 이루 다 헤아

릴 수 없으니, 根結을 모르면 五藏六府가 關과 樞의 기능을 잃어서 닫힌 것이 달아나게 되어서 陰陽이 크게 失調되므로 다시 治療할 수가 없습니다. 九鍼의 玄妙한 요점은 終始篇에 있으므로 能히 經絡의 終始를 알면 一言에 畢하거니와 經絡의 終始를 모르면 九鍼의 理致가 전부 斷折됩니다.”

第 2章 足三陽三陰經의 根結

第1節 足三陽經

【原文】

太陽은 根於至陰하야 結於命門하니 命門者는 目也^{1) [1]}요 陽明은 根於厲兌²⁾하야 結於頰⁽¹⁾大하니 頰大者는 鉗⁽²⁾耳也^{3) [2]}요 少陽은 根於竅陰하야 結於窗⁽³⁾籠⁽⁴⁾하니 窗籠者는 耳中也^{4) [3]}이라 太陽은 爲開⁵⁾하고 陽明은 爲闔하고 少陽은 爲樞⁴⁾ 故로 開折 則肉節瀆^{6) [5]} 而暴病起矣 故로 暴病者⁷⁾는 取之太陽호대 視有餘不足이요 瀆者는 皮肉宛⁽⁶⁾ 腫⁽⁷⁾而弱也^{8) [5]}이라 闔折 則氣無所止息 而痿疾起矣⁹⁾ 故로 痿疾者는 取之陽明¹⁰⁾호대 視有餘不足이요 無所止息者는 眞氣가 稽留^{11) [8]}하야 邪氣居之也^[6]이라 樞折 卽骨繇^{12) [9]} 而不安於地¹³⁾ 故로 骨繇者는 取之少陽호대 視有餘不足이요 骨繇者는 節緩而不收也¹⁴⁾요 所謂骨繇者는 搖故也라 當窮其本也^{15) [7]} 니이다

【校勘】

- 1) 命門者 目也 ; 《太素》 10권 「經脈根結」 에는 없다.
- 2) 根於厲兌 ; 《太素》 5권 「陰陽合」 에는 ‘根起於厲兌’로 되어 있다.
- 3) 結於頰大 頰大者 鉗耳也 : 《甲乙》 2권 제 5에는 ‘結於頰頰 頰頰者鉗大 鉗大

者耳也'으로 되어 있다.

- 4) 窗籠者 耳中也 ; 《太素》 10권 「經脈根結」 에는 없다.
- 5) 太陽爲開 ; 《太素》 10권 「經脈根結」 '太陽爲關'으로 되어 있다.
- 6) 開折則肉節瀆 ; 《金陵本》 에는 '開折則內節瀆'으로, 《太素》 10권 「經脈根結」 에는 '開折則肉節瀆'으로, 《甲乙》 2권 제 5에는 모두 '開折則內節瀆緩'으로 되어 있다.
- 7) 故暴病者 ; 《甲乙》 2권 제 5에는 '故候暴病者'로 되어 있다.
- 8) 瀆者皮肉宛焦而弱也 ; 《太素》 10권 「經脈根結」 (蕭延平校本)에는 '瀆者肉宛焦而弱'로, 《太素》 (袁昶刻本)에는 '瀆者皮肉宛焦而弱'으로, 《甲乙》 2권 제 5에는 '瀆者皮肉緩焦而弱也'로 되어 있다.
- 9) 闔折則氣無所止息而痿疾起矣 ; 《甲乙》 2권 제 5에는 '闔折則氣無所止息而痿病起矣'로 되어 있다.
- 10) 故痿疾者 取之陽明 ; 《甲乙》 2권 제 5에는 '故痿疾者 皆取之陽明'으로 되어 있다.
- 11) 眞氣稽留 ; 《太素》 10권 「經脈根結」 에는 '謂眞氣稽留'로 되어 있다.
- 12) 骨繇 ; 《甲乙》 2권 제 5와 《太素》 10권 「經脈根結」 에는 '骨搖'로 되어 있고, 《甲乙》 에서는 아래의 文句에 나오는 '繇'는 모두 '搖'로 되어 있다.
- 13) 不安於地 ; 《甲乙》 2권 제 5에는 '不能安於地'로 되어 있다.
- 14) 節緩而不收也 ; 《日抄本》 에는 '節緩而不取也'로 되어 있다.
- 15) 當窮其本也 ; 《太素》 10권 「經脈根結」 에는 '當竅其本'으로, 《甲乙》 2권 제 5

에는 '當竅其本'으로 되어 있다.

【考察】

〔校勘에 대한 考察〕

▶ 《素問·陰陽離合論》 新校正本에서 引用하고 있다는 《九墟》의 版本이 이미 遺失되어 傳하여져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原文의 內容을 직접 확인하기가 不可能하고, 《語譯》과 《校釋》에서 校勘한 後代 醫書들 가운데서 本 篇을 直接的으로 引用하지 않는 校勘에 대해서는 省略을 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따라서 本 論文의 校勘에서는 《九墟》와 本 篇의 原文을 직접 引用하지 않은 後代 醫書들에 대하여서는 校勘을 省略하였다.

▶ '痿疾'에 관하여

足陽明胃經은 飲食物을 消化시키고 精微로운 物質을 吸收하는 功能을 가지고 있다. 또한, 消化·吸收한 物質을 바탕으로 氣를 生成하고 肌肉을 滋養하는 作用을 하므로 闔의 機能이 正常的인 作用을 하지 못하게 되면 肌肉이 萎縮되는 病이 發生한다. 그리고, 《甲乙經校釋》의 原文에서도 '痿病'이라고 하여 《甲乙》의 原文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病源辭典》에 의하면 '痿證'은 '蓄血과 水飲痰氣가 心을 凌蔑하기 때문에 發生한다.'고 하여 주로 心의 病變으로 보았다. 痿證의 治療는 蓄血이 있는 사람은 桃仁承氣湯을 投與하고, 水飲痰氣로 인한 사람은 茯苓, 半夏, 白朮, 甘草, 陳皮, 生薑之劑를 使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甲乙》의 原文에 나오는 '痿病'은 胃에서 痰飲이 停滯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足三陽經의 開闔 機能이 損傷되어서 發生하는 疾患들이

전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疾患 들인 점을 감안하면 ‘痿病’보다는 ‘痺病’이 原文의 趣旨에 좀 더 適合하다고 思料된다.

참고로 足三陰의 開闔樞 機能이 損傷되어 발생한 疾患들은 주로 內傷쪽에 瘡점이 맞 추어져 있다.

▶ ‘當窮其本’에 관하여

《太素》에는 ‘當窮其本’이 ‘當竅其本’으로 되어 있으나, 蕭延平은 “楊의 注釋에서 ‘竅’

의 音은 ‘核(핵)’이라고 하였고 ‘竅(핵)’을 모양이 비슷한 ‘竅’로 잘못 인식하고 인쇄한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竅’에는 핵실하다 卽 사실을 조사하여 밝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 《太素》의 ‘當竅其本’은 錯簡으로 思料된다.

[較註에 대한 考察]

▶ ‘根結’과 ‘標本’의 比較表

① 十二經脈의 標本表

| 區別 | 本 | | 標 | |
|------|------------|--------|-----------|-----------------|
| | 部位 | 穴名 | 部位 | 穴名 |
| 足太陽經 | 跟以上 5寸中 | 跗陽 | 兩絡命門 | 睛明 |
| 足少陽經 | 竅陰之間 | 足竅陰 | 窗籠之前 | 聽宮 |
| 足陽明經 | 厲兌 | 厲兌 | 人迎頰下, 挾頰頰 | 人迎 |
| 足厥陰經 | 行間上 5寸中 | 中封 | 背俞 | 肝俞 |
| 足少陰經 | 內踝上 2寸中 | 復溜, 交信 | 背俞, 舌下兩脈 | 腎俞, 廉泉 |
| 足太陰經 | 中封前上 4寸中 | 三陰交 | 背俞與舌本 | 脾俞, 廉泉 |
| 手太陽經 | 外踝之後 | 養老 | 命門之上 1寸 | 睛明上 1寸 |
| 手少陰經 | 小指次指之間上 2寸 | 液門 | 耳後上角下外眥 | 角孫, 絲竹空 |
| 手陽明經 | 肘骨中, 上至別陽 | 曲池, 臂臑 | 頰下合鉗上 | 頰下 1寸, 人迎後, 扶突上 |
| 手太陰經 | 寸口之中 | 太淵 | 腋內動脈 | 天府 |
| 手少陰經 | 銳骨之端 | 神門 | 背俞 | 心俞 |
| 手厥陰經 | 掌後兩筋之間 2寸中 | 內關 | 腋下 3寸 | 天池 |

▶ 一般的으로 標는 現象을, 本은 本質을 의미한다. 標本이라는 것은 相對的인 개념으로서 여러 곳에서 適用하여 쓸 수 있는 用語이다. 本 篇에서는 十二經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十二經脈의 標本에서는 人體部位에 따라 上部는 標가 되고 下部

는 本이 된다. 따라서, 頭·面·胸·背部等 相對的으로 높은 곳에 있으므로 標에 屬하고, 四肢下端 等은 相對的으로 낮은 곳에 있으므로 本에 屬한다.(《鍼灸大辭典》에 의거하여 정리를 하였다.)

② 根結表

| 區別 | 根 | | 結 | |
|------|-------|----|--------|--------|
| | 部位 | 穴名 | 部位 | 穴名 |
| 足太陽經 | 足小趾 | 至陰 | 命門(目) | 睛明 |
| 足少陽經 | 足次趾 | 竅陰 | 窗籠(耳中) | 聽宮 |
| 足陽明經 | 足四趾 | 厲兌 | 顙大(鉗耳) | 頭維, 大迎 |
| 足厥陰經 | 足大趾內端 | 大敦 | 玉英(胸) | 玉堂 |
| 足少陰經 | 足心 | 湧泉 | 廉泉(頸後) | 廉泉 |
| 足太陰經 | 足大趾外端 | 隱白 | 太倉(上腹) | 中脘 |

▶ 根結에 대한 의미는 1장에서 考察하였으므로 생략하였다.

▶ 足太陽經은 根과 本이 다르고, 足陽明經은 結과 標가 다르며, 足厥陰經은 根과 本, 結과 標가 서로 다르다. 足少陰經은 根과 本이 다르고, 足太陰經은 根과 本, 結과 標가 서로 다르다.

▶ 馬 等の 注釋家들은 ‘顙大’를 ‘頭維’라 하였고 景岳 等은 ‘大迎’이라고 하였는데, ‘結’이라는 것은 ‘頭·胸·腹部의 脈氣가 結聚되는 곳’을 가리키는 말로서 特定한 部位를 일컫지는 않기 때문에 各自의 見解에 따라 ‘結’이 되는 위치가 약간은 서로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따라서, ‘頭維’나 ‘大迎’중 어느 것을 ‘結’로 하든지 간에 모두 原文의 趣旨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思料된다.

▶ 太陽이 ‘開’, 陽明이 ‘闔’, 少陽이 ‘樞’가 되는 이유에 관하여

楊은 ‘太陽經은 빛장(關門), 陽明經은 문좌(門扉), 少陽經은 지도리(門樞)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각기 開闔樞가 된다.’고 하여 ‘開闔樞’의 生理代謝를 抽象的으로 門에 比喻하였고,

馬는 ‘太陽經은 三陽으로 가장 表部에 있어서 開가 되고, 陽明經은 二陽으로 陽의 가운데에 있어서 闔이 되며, 少陽經은 一陽으로 가장 안에 있으므로 樞가 된다.’고 하여 陽氣의 크기를 가지고서 開闔樞를 分類하였고,

景岳·譯釋은 ‘太陽經은 陽氣가 外部로 發散하여 三陽의 表가 되므로 開가, 陽明經은 陽氣가 內部에 蓄積되어 三陽의 裏가 되므로 闔이, 少陽經은 陽氣가 表裏사이를 들락날락하면서 마치 中樞가 되는 機關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樞가 된다.’고 하여 開闔樞의 機能代謝의인 側面과 經絡의 位置로써 分類하였고,

張은 ‘太陽經은 氣가 旺盛하므로 開가, 陽明經은 太陽과 少陽의 밝음이 합하여지므로 闔이, 少陽經은 氣가 처음 發生하므로 樞가 된다.’고 하여 氣의 盛衰를 가지고서 分類하였고,

黃은 ‘太陽經은 陽이 장차 衰殘해지고 表部에 있으므로 開가, 陽明經은 陽이 旺盛하고 裏部에 있으므로 闔이, 少陽은 旺盛하지도 衰하지도 않고 太陽經과 少陽經의 가운데에 있으므로 樞가 된다.’고 하여 氣의 盛

衰와 經絡의 位置를 가지고서 分類하였고, 또한, 《語譯》은 ‘足太陽膀胱經脈이 津液과 毛孔을 막는 作用을 主宰하므로 《太素》에 나오는 것처럼 ‘開’는 막는다는 의미를 內包하고 있는 ‘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여 ‘開’의 開放作用보다는 膀胱腑의 기능을 더 강조하였다. 그러나, ‘關’에는 ‘문을 닫다.’ 내지는 ‘간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開’를 ‘關’으로 바꾸게 되면 ‘關’과 ‘關’의 作用이 중복되므로 ‘開’를 ‘關’으로 바꾸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思料된다.

▶‘肉節瀆’에 관하여

‘肉節瀆’을 馬 等의 注釋家들은 ‘피부와 살이 까칠해지면서 건조해지고, 점차 아워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皮’는 肺가 主宰하고 ‘肌肉’은 脾가 主宰하는 것으로서 膀胱의 作用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開’의 機能的인 側面에서 살펴보면 그 作用은 陽氣를 全身으로 運行(運化)시켜서 皮肉과 筋骨을 滋養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 기능이 훼손되면 ‘肉節瀆’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開’가 折하였다고 하는 것을 ‘足太陽膀胱經’의 作用이 훼손되었다고 하기보다는 ‘開’의 作用이 훼손되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思料된다.

▶‘無所止息者 眞氣稽留 邪氣居之也’에 관하여

楊은 ‘氣가 保存되지 않아서 새나가고, 또한 氣가 運行을 못하여 기르지 못하는 것은 眞氣가 運行되지 않고, 도리어 邪氣가 侵入하는 것’이라고 하여 ‘止’를 ‘氣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로, ‘息’을 ‘기른다.’는 의미로 解釋을 하였고,

馬 等은 ‘正氣가 안에서 머물러서 四肢로 가지 못하고, 도리어 邪氣가 四肢에 侵入하

는 것’이라고 하여 正氣의 運行的인 側面에서 解釋을 하였고,

景岳은 ‘胃氣가 運行되지 않으면 도리어 邪氣가 侵入하여 氣가 逆上하게 되며 다리에서는 痿病이 發生한다.’고 하여 胃氣의 運行的인 側面에서 解釋을 하였고,

張은 ‘氣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여 ‘氣’의 역할을 가지고서 解釋을 하였다.

‘無所止息’은 ‘止와 息이 없다.’는 것으로서 ‘止’는 ‘새어나가는 것을 그치게 하는 것’이고, ‘息’은 ‘번식한다.’는 뜻으로 길러진다는 意味이다. 全體的인 의미는 새어나가는 것을 멈추게 하고 길러지는 것이 없다는 뜻으로 하여야 문장의 의미가 가장 잘 通할 것으로 思料된다. 따라서, 楊의 注釋이 가장 妥當할 것 같다.

▶‘骨齶病’에 관하여

‘骨齶’라는 것은 關節이 느슨해져서 제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땅에 서있는 것이 不安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西洋醫學의 ‘骨關節炎’이나 ‘骨多孔症’ 및 ‘關節周圍의 筋肉이나 靭帶 損傷’, ‘筋無力症’ 등과도 密接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直譯】

太陽은 至陰에 根本을 두고 命門에 結聚하니 命門은 눈이다. 陽明은 厲兌에 根本을 두고 頰大에 結聚하니 頰大은 鉗耳이다. 少陽은 竅陰에 根本을 두고 窓籠에 結聚하니 窓籠은 耳中이다. 太陽은 開가 되고 陽明은 關이 되고 少陽은 樞가 되므로 開가 기능을 잃으면 分肉이 까칠해지고 약해져서(瀆) 急性病(暴病)이 발생하므로 暴病은 太陽經에서 刺鍼하되 有餘와 不足을 잘 살펴야 하니 瀆이란 皮肉이 까칠해지고 弱해진 것

이다. 闔이 기능을 잃으면 氣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여(氣無所止息) 痿疾이 發生하므로 痿疾은 陽明經에서 刺鍼하되 有餘와 不足을 잘 살펴야 하니 ‘無所止息’은 眞氣가 停滯되어 邪氣가 거기에 침입한 것이다. 樞가 기능을 잃으면 骨幹이 흔들려(骨繇) 제대로 설 수가 없으므로 骨繇한 사람은 少陽經에서 刺鍼하되 有餘와 不足을 잘 살펴야 하니 骨節이 弛緩되어 四肢를 가누지 못하는 것이다. 骨繇라고 말하는 것은 搖動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이와 같이 그 根本을 窮究해야만 합니다.

第 2節 足三陰經

【原文】

太陰은 根於隱白¹⁾하야 結於太倉¹⁾하고 少陰은 根於湧泉¹⁾하야 結於廉泉²⁾하고 厥陰은 根於大敦³⁾하야 結於玉英³⁾하고 絡於臚中²⁾³⁾하니 太陰은 爲開⁴⁾요 厥陰은 爲闔⁴⁾요 少陰은 爲樞⁴⁾라 故로 開折 則倉廩⁽¹⁾이 無所輸膈⁽²⁾洞⁽³⁾하니 膈洞⁽⁵⁾者는 取之太陰호대 視有餘不足 故로 開折者는 氣不足⁽⁶⁾而生病也⁽⁵⁾라 闔折⁽⁷⁾即氣絶⁽⁷⁾而喜悲하니 悲者⁽⁸⁾는 取之厥陰호대 視有餘不足⁽⁶⁾이라 樞折⁽⁷⁾則脈有所結而不通하니 不通者는 取之少陰호대 視有餘不足하야 有結者는 皆取之不足⁹⁾⁷⁾이니이다

【校勘】

- 1) 少陰根於湧泉 ; 《太素》 10권 「經脈根結」에는 ‘少陰根於湧泉’으로 되어 있다.
- 2) 少陰根於湧泉 結於廉泉 厥陰根於大敦 結於玉英 絡於臚中 ; 《甲乙》 2권 제 5에는 ‘厥陰根於大敦 結於玉英 絡於臚中 少陰根於湧泉 結於廉泉’으로 되어 있다.
- 3) 絡於臚中 ; 《太素》 10권 「經脈根結」

(蕭延平校本)에는 ‘終於臚中’으로 되어 있다.

- 4) 太陰爲開 ; 《太素》 10권 「經脈根結」에는 모두 ‘太陰爲關’으로 되어 있다. 아래 文句에 나오는 ‘開’ 역시 ‘關’으로 되어 있다.
- 5) 膈洞 ; 《太素》 10권 「經脈根結」에는 ‘膈洞’으로 되어 있다.
- 6) 氣不足 ; 《甲乙》 2권 제 5에는 ‘則氣不足’으로 되어 있다.
- 7) 闔折即氣絶 ; 《張注本》에는 ‘闔折 則氣絶’로, 《校釋》과 《甲乙》 2권 제5에는 ‘闔折 即氣弛’로, 《太素》 10권 「經脈根結」에는 ‘闔折 即氣施’로 되어 있다.
- 8) 悲者 ; 《甲乙》 2권 제 5에는 ‘善悲者’로 되어 있다.
- 9) 皆取之不足 ; 《太素》 10권 「經脈根結」과 《甲乙》 2권 제 5에는 ‘皆取之’로 되어 있다.

【考察】

〔校勘에 대한 考察〕

▶ ‘闔折即氣絶’에 관하여

《校釋》과 《甲乙》에는 ‘闔折即氣弛’로, 《太素》에는 ‘闔折即氣施’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 《校釋》의 校勘에서는 “‘弛’는 ‘弓弛’와 같고 뜻이 ‘施’와 通한다. 《周禮》 遂人 ‘與其施舍者’의 鄭注에는 “施는 弛로 하여 읽는다.”라고 하였으니 ‘氣弛’는 즉 ‘氣緩’을 말한 것이다. 《廣雅》·釋詁二에도 ‘弛, 緩也.’라 하여 楊注의 ‘緩縱’과 뜻이 합치된다. 以上에서 ‘絶’은 ‘弛’와 모양이 비슷하여 잘못 쓴 것이니 《甲乙》과 《太素》에 의거하여 마땅히 ‘弛’로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各 家의 注釋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楊을

제외한 注釋家들은 모두 ‘絶’로 해석을 하였으나, 氣가 斷絶되면 사람이 죽게 되므로 全體的인 文章의 흐름상 ‘斷絶’ 보다는 ‘弛緩’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思料된다.

▶‘悲者’에 관하여

바로 앞에 나오는 ‘喜悲’에서 ‘喜’는 ‘善’·‘好’·‘良’ 등과 같이 ‘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甲乙》에서처럼 ‘善悲者’로 하는 것이 原文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좀 더 明確할 것으로 思料된다.

[較註에 대한 考察]

▶‘太倉’에 관하여

楊 等は ‘中脘’이라고 하였고, 張은 ‘舌本’이라고 하였다. 張의 注釋을 살펴보면 ‘脾는 倉廩之官이니 그 脈이 舌本에 이어진다.’라고 하여서 ‘舌本’이 脾의 脈氣가 結聚되는 곳이 될 수도 있으나, 뒷 문장에서 ‘開’의 機能이 훼손되면 ‘膈洞’이 發生한다고 하였고, ‘太倉’은 醫學에서 ‘飲食物을 받아들이는 큰 창고’라는 의미로 轉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太倉’을 ‘中脘’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原文의 趣旨에 符合될 것으로 思料된다.

▶‘玉英’에 관하여

丹波는 ‘鬮交’라고 하였는데, ‘太倉’에 관한 張의 注釋처럼 肝脈이 이어지는 곳이 ‘鬮交’이므로 그곳에서 脈氣가 結聚되는 걸로 보았던 것으로 思料된다.

▶‘膈洞’에 관하여

‘膈洞’이 되는 이유에 대하여 楊은 ‘膈氣’가 虛弱하므로, 馬 等は ‘脾’가 ‘運化作用’을 하지 못하므로, 景岳은 ‘脾’의 ‘陽氣’가 不足해지므로, 黃은 ‘脾氣’가 不足해지므로 發生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膈’에 대하여서는 楊과 馬 等は

‘飲食物을 胃腸으로 보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여 閉塞의 概念으로, 景岳은 ‘洞’을 飲食이 소화되지 않아서 목구멍으로 내려갔던 것이 다시 되돌아 온다고 하여 ‘上吐’의 개념으로, 黃은 ‘胸膈이 텅 비어버리게 된다.’고 하여 ‘空洞’의 개념으로 注釋을 하였다.

《病源辭典》에 의하면 ‘膈洞’의 原因은 脾胃가 不和하여 中氣가 不足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症狀은 위로는 閉塞되어 飲食을 먹지 못하며 아래로는 泄瀉를 아주 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治療는 益智仁, 畢撥, 良薑, 赤石脂, 枳殼, 白朮之劑를 사용하여 脾胃의 陽을 溫運시킨다고 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原因에 대한 各 注釋家의 見解는 別반 큰 차이가 없지만, ‘膈’에 대한 症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질 수도 있다.

그러나, ‘膈洞’이라는 것은 食物을 삼키지 못하고 다시 吐해버리고 아래로는 泄瀉를 하여서 胸膈과 胃腸이 텅 비어 버리게 되는 狀況을 말한 것이므로 各 注釋家들의 見解가 原文의 趣旨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思料된다.

▶‘悲’하는 이유에 관하여

楊은 厥陰의 筋氣가 느슨해지므로, 馬 等は 木의 虛로 因하여 金이 旺盛해져서 肺가 肝을 相乘하므로, 張은 腎의 情緒인 志를 펼칠 수가 없으므로 잘 슬피하게 된다고 하여 서로 다른 見解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注釋한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原文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思料된다.

▶‘脈有所結而不通’에 관하여

대부분의 注釋家들은 ‘腎脈’에 結滯가 있

는 것으로 보았으나, 黃은 '心脈'에 結滯가 있는 것으로 注釋을 하였다. 그러나, 뒷 문장에 '有結者皆取之不足'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항상 虛한 것으로 인하여 病이 생기지 實하여서는 病이 생기지 않는 腎脈으로 解釋을 하는 것이 좀 더 原文의 趣旨에 가까울 것으로 思料된다.

그리고, '結滯'라는 것은 一般的으로 瀉하는 方法으로써 치료하지만 腎臟의 結滯만큼은 正氣를 補하여 스스로 結滯가 풀리게 하여야 적절한 治療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直譯】

太陰은 隱白에 根本을 두고 太倉에 結聚하며, 少陰은 湧泉에 根本을 두고 廉泉에 結聚하며, 厥陰은 大敦에 根本을 두고 玉英에 結聚하며 膻中에 絡하니 太陰은 開가 되고 厥陰은 闔이 되고 少陰은 樞가 된다. 그러므로, 開가 기능을 잃으면 倉廩으로 輸送을 할 수가 없어서 膈塞과 洞泄이 발생하니 膈塞과 洞泄이 있는 사람은 太陰經에 刺鍼을 하되 有餘와 不足을 잘 살피야하므로 開가 기능을 못하는 사람은 脾氣가 不足해져서 病이 發生하는 것이다. 闔이 기능을 잃으면 氣가 단절되어 잘 슬퍼하게 되니, 잘 슬퍼하면 厥陰經에 刺鍼을 하되 有餘와 不足을 잘 살피야 한다. 樞가 기능을 잃으면 經脈에 結滯되는 것이 있어서 通하지 않으니, 통하지 않으면 少陰經에 刺鍼을 하되 有餘와 不足을 잘 살피야 하나, 結滯된 것이 있으면 모두 不足으로 보고 刺鍼해야 합니다.

第 3章 陰陽의 多少

第 1節 手足三陽의 根·溜·注·入

【原文】

足太陽은 根⁽¹⁾於至陰하야 溜⁽²⁾於京骨⁽¹⁾하고 注⁽³⁾於崑崙하고 入⁽⁴⁾於天柱⁽²⁾飛揚也요 足少陽은 根於竅陰하야 溜於丘墟하고 注於陽輔하고 入於天容 光明也⁽¹⁾요 足陽明은 根於厲兌하야 溜於衝陽하고 注入下陵하야 入於人迎 豐隆也요 手太陽은 根於少澤하야 溜於陽谷하고 注於少海하고 入於天窗 支正也요 手少陽은 根於關衝하야 溜於陽池하고 注於支溝하고 入於天牖 外關也요 手陽明은 根於商陽하야 溜於合谷하고 注於陽谿하고 入於扶突 偏歷也라 此는 所謂十二經者⁽³⁾니 盛絡⁽⁴⁾하면 皆當取之⁽²⁾라

【校勘】

- 1) 溜於京骨 ; 《太素》 10권 「經脈根結」과 《甲乙》 2권 제 5에는 모두 '流於京骨'로 되어 있다.
- 2) 入於天柱 ; 《周本》에는 '入於天注'로 되어 있다.
- 3) 所謂十二經者 ; 《太素》 10권 「經脈根結」에는 '所謂根十二經者'로, 《甲乙》 2권 제 5에는 '所謂十二經絡'으로 되어 있다.
- 4) 盛絡 ; 《甲乙》 2권 제 5에는 '絡盛'으로, 《太素》 10권 「經脈根結」에는 '盛絡者'로 되어 있다.

【考察】

〔校勘에 대한 考察〕

▶ '天容'에 관하여

《校釋》에 “《甲乙》校注에 '天容'은 아마 잘못된 것 같다고 하였다. 劉衡如 《靈樞經》校語에 이르기를, 《甲乙》 3권 제 12에 天容를 手少陽脈氣가 發하는 곳이라 하였다. 따라서 宋의 林億 등이 《甲乙》 2

권 제5의 本文段을 校할 때에 ‘天容’에 잘못됨이 있지 않나 의심한다고 했다. 明代의 馬蒔와 張介賓은 모두 이를 마땅히 ‘天衝’으로 해야 한다고 했으며, 《外臺》와 《銅人》 및 《發揮》 등의 醫書에는 비로소 天容을 足太陽脈氣가 發하는 곳이라고 하였고, 《太素》에는 그대로 ‘天容’으로 하고 있지만 楊上善注에는 이것이 足少陽膽經의 正經이라고 하고 있는 바, 이것이 古今의 經穴學說의 不同이다.”고 하였다. 그런데, ‘天容’은 手太陽小腸經脈의 穴이고 ‘天衝’은 足少陽膽經脈의 穴이 되기 때문에 ‘天容’을 ‘天衝’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思料된다. 따라서, 直譯과 意譯은 ‘天衝’으로 하고자 한다.

▶ ‘少海’에 관하여

《校釋》에 “이는 마땅히 ‘小海’로 고쳐야 하니 ‘小海’는 手太陽脈이 入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甲乙》 3권 제29와 《素問·氣府論》의 ‘手太陽脈氣’의 文段 및 王注에 의거하여 ‘小海’로 고쳐 手少陰의 ‘少海’와 서로 혼동됨을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小海’와 ‘少海’는音が 같고 글자의 모양이 비슷하므로 항상 주의를 해서 살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校註에 대한 考察]

▶ ‘天容’에 관하여

校勘의 考察로 보아 白話가 ‘天容’이라 하

고 한 것은 錯簡으로 思料된다.

▶ ‘十二經脈’에 관하여

楊은 ‘六陰經脈이 省略되었다.’고 하였고, 다른 注釋家들은 ‘手三陽經과 足三陽經의 左右를 合하여 十二經脈이 된다.’고 하였다. 자고로, 經脈의 氣가 鬱滯되어 盛大한 곳은 陰經보다는 陽經에서 많이 나타나므로 楊을 제외한 他注釋家들의 見解가 옳을 것으로 思料된다.

▶ ‘根結’을 이용한 刺法

‘結結’의 ‘根’은 五輸穴 가운데에서 井穴에 屬한다. ‘根’이 있는 四肢末端의 部位는 經氣가 通過·接續하는데 있어서 重要한 機能과 作用을 하며, 上病을 下取하는 方法의 根據로서 많이 사용한다.

‘根結’의 理論은 주로 經氣의 貫通·集中과 두루 이어지는 影響을 說明한 것이며 그 指稱하는 部位가 상당히 廣範圍하다. 六經의 根結에서 根·溜·注·入을 보면 根은 井穴이고, 溜는 原穴이며, 注는 經穴 或은 合穴이고, 入은 絡穴 및 頸項部의 腧穴들이다.

四肢의 肘·膝關節 以下 部位의 腧穴은 그 經穴이 있는 部位의 局部疾患을 治療할 뿐만 아니라 頭·面·胸·腹·背部의 疾患을 治療할 수가 있다. 이는 經脈과 藏府가 서로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고, 또 經氣가 上下·內外로 相應하고 있음을 뜻한다.

▶ 六陽經의 根·溜·注·入하는 表

| 經名 | 根穴 | 溜穴 | 注穴 | 入穴 |
|-----|--------|--------|-----------|------------|
| 足太陽 | 至陰(井穴) | 京骨(原穴) | 崑崙(經穴) | 天柱, 飛揚(絡穴) |
| 足少陽 | 竅陰(井穴) | 丘墟(原穴) | 陽輔(經穴) | 天容, 光明(絡穴) |
| 足陽明 | 厲兌(井穴) | 衝陽(原穴) | 下陵=解谿(經穴) | 人迎, 豐隆(絡穴) |
| 手太陽 | 少澤(井穴) | 陽谷(經穴) | 小海(合穴) | 天窓, 支正(絡穴) |
| 手少陽 | 關衝(井穴) | 陽池(原穴) | 支溝(經穴) | 天牖, 外關(絡穴) |
| 手陽明 | 商陽(井穴) | 合谷(原穴) | 陽谿(經穴) | 扶突, 偏歷(絡穴) |

〈비교〉 六陽經의 五輸穴과 原·絡·隙·募의 表

| | 井(金) | 榮(水) | 輸(木) | 經(火) | 合(土) | 原 | 絡 | 隙 | 募 |
|------|------|------|------|------|------|----|----|----|----|
| 足太陽經 | 至陰 | 通谷 | 束骨 | 崑崙 | 委中 | 京骨 | 飛揚 | 金門 | 中極 |
| 足少陽經 | 竅陰 | 俠谿 | 足臨泣 | 陽輔 | 陽陵泉 | 丘墟 | 光明 | 外丘 | 日月 |
| 足陽明經 | 厲兌 | 內定 | 陷谷 | 解谿 | 足三里 | 衝陽 | 豐隆 | 梁丘 | 中脘 |
| 手太陽經 | 少澤 | 前谷 | 後谿 | 陽谷 | 小海 | 腕骨 | 支正 | 養老 | 關元 |
| 手少陽經 | 關衝 | 液門 | 中渚 | 支溝 | 天井 | 陽池 | 外關 | 會宗 | 石門 |
| 手陽明經 | 商陽 | 二間 | 三間 | 陽谿 | 曲池 | 合谷 | 偏歷 | 溫溜 | 天樞 |

〈참고〉 六陰經의 五輸穴과 原·絡·隙·募의 表

| | 井(木) | 榮(火) | 輸(土) | 經(金) | 合(水) | 原 | 絡 | 隙 | 募 |
|------|------|------|------|------|------|----|----|----|----|
| 足太陰經 | 隱白 | 大都 | 太白 | 商丘 | 陰陵泉 | 太白 | 公孫 | 支溝 | 章門 |
| 足少陰經 | 湧泉 | 然谷 | 太谿 | 復溜 | 陰谷 | 太谿 | 大鍾 | 水泉 | 京門 |
| 足厥陰經 | 大敦 | 行間 | 太衝 | 中封 | 曲泉 | 太衝 | 蠡溝 | 中都 | 期門 |
| 手太陰經 | 少商 | 魚際 | 太淵 | 經渠 | 尺澤 | 太淵 | 列缺 | 孔最 | 中府 |
| 手少陰經 | 少衝 | 少府 | 神門 | 靈道 | 少海 | 神門 | 通里 | 陰郤 | 巨闕 |
| 手厥陰經 | 中衝 | 勞宮 | 大陵 | 間使 | 曲澤 | 大陵 | 內關 | 隙門 | 臑中 |

【直譯】

足太陽은 至陰에 根本을 두고 京骨에 溜하고 崑崙에 注하고 天柱와 飛陽으로 入한다. 足少陽은 竅陰에 根本을 두고 丘墟에 溜하고 陽輔에 注하고 天衝과 光明으로 入한다. 足陽明은 厲兌에 根本을 두고 衝陽에 溜하고 下陵(解谿)에 注入하고 人迎과 豐隆으로 入한다. 手太陽은 少澤에 根本을 두고 陽谷에 溜하고 小海에 注하고 天窓과 支正으로 入한다. 手少陽은 關衝에 根本을 두고 陽池에 溜하고 支溝에 注하고 天牖와 外關으로 入한다. 手陽明은 商陽에 根本을 두고 合谷에 溜하고 陽谿에 注하고 扶突과 偏歷으로 入한다. 이것이 十二經이라는 것이니, 鬱結된 絡이 있으면 바로 이를 瀉血시켜야 합니다.

第 2節 代脈과 藏氣絶

【原文】

一日一夜에 五十營⁽¹⁾하야 以營⁽²⁾五藏之精 하나니 不應數者를 名曰狂生⁽¹⁾⁽¹⁾이라 所謂五十營者는 五藏이 皆受氣⁽²⁾니 持其脈口하야 數⁽³⁾其至也⁽²⁾에 五十動而不一代⁽⁴⁾者는 五藏이 皆受氣⁽³⁾요 四十動一代者⁽³⁾는 一藏無氣⁽⁴⁾요 三十動一代者는 二藏無氣⁽⁵⁾요 二十動一代者는 三藏無氣⁽⁶⁾요 十動一代者는 四藏無氣⁽⁷⁾요 不滿十動一代者는 五藏無氣⁽⁸⁾니 予⁽⁵⁾之短期요 要在終始라 所謂五十動而不一代者는 以爲常也니 以知五藏之期요 予之短期者는 乍數乍疏也⁽⁹⁾니이다

【校勘】

1) 名曰狂生 ; 《甲乙》 1권 제 9에는 '謂之狂生'으로 되어 있다.

- 2) 所謂五十營者 五藏皆受氣 ; 《甲乙》 1권 제 9와 《太素》 14권 「人迎脈口診」에는 '所謂五十營者 五藏皆受氣也'로 되어 있다.
- 3) 四十動一代者 ; 《太素》 14권 「人迎脈口診」과 《甲乙》 4권 제 1 上에는 '四十動而一代者'로 되어 있다. 아래 句節의 '三十動' 등도 같다.

【考察】

〔較註에 대한 考察〕

▶ '代脈'에 관하여

'代'라는 것은 곧 '止'를 뜻하는 것으로서 脈이 搏動하다가 停止하는 것을 말하는데 一藏의 氣가 作用을 하지 못하면 他 藏이 대신하므로 危險한 脈에 屬한다.

《醫學入門》의 「諸脈相兼主病」門을 살펴보면 大文에는 '代脈은 반드시 죽는 脈으로 藏氣가 斷絶된 것이니 平常人에게 나타나면 매우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였고, 小文에 '病人에게 代脈이 나타나면 도리어 살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또, '痛風患者는 痰濕이 막아서 代脈이 생기고, 妊娠 3個月에는 胎氣가 氣血의 循環을 막아서 代脈이 생기는 것이므로 오히려 무방하다.'고 하였으며, '갑자기 氣血이 損傷되어 代脈이 나타난 것은 일시적으로 元氣가 調和되지 않기 때문이지 藏氣가 斷絶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炙甘草湯으로 治療함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람에게 代脈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죽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示唆해주고 있다. 물론, 中風·痛風·妊娠 3개월에 나타나는 代脈이 무조건 無妨한 것은 아니고 停止하는 빈도수가 減少하여야만 좋고 빈도가 增加한다면 별로 좋지 않은 徵兆이다.

《醫學入門》에 “四十動後에 한 번 멈추는 것은 腎氣가 먼저 斷絶하기 때문이니 4年만에 臨終하고, 三十動後에 한 번 멈추는 것은 腎·肝이 無氣한 까닭이니 3年만에 臨終하며, 二十動後에 한 번 멈추는 것은 腎·肝·心이 無氣한 까닭이니 2年만에 臨終하고, 十五動後에 한 번 멈추는 것은 腎·肝·心·脾가 無氣한 까닭이니 1年만에 臨終한다.”고 하였다.

또한, “一動에 한 번 멈추는 것은 2日만에 臨終하고, 二動에 한 번 멈추는 것은 4日만에 臨終하며, 三動에 한 번 멈추는 것은 6日만에 臨終하고, 四動에 한 번 멈추는 것은 8日만에 臨終하며, 五動에 한 번 멈추는 것은 10日만에 臨終하고, 十動에 한 번 멈추는 것은 1年만에 臨終한다.”고 하였다.

《大辭典》에는 “代脈이 나타나면 腹痛·蓄血證이나 또는 泄利·吐瀉, 또는 下元에 虛損이 發生하니, 모두 藏氣가 매우 衰弱하므로 形容이 羸瘦하여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證候들이 나타난다. 代脈에는 살 수 있는 證候와 죽는 證候가 있으니 응당 이를 分別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瀕湖脈學》에는 “脈搏이 一呼吸에 5회 이르면 肺·心·脾·肝·腎 五藏의 氣가 모두 充足한 것이니 脈이 50回 搏動하고 한번 쉬면 이는 大衍數와 合致되므로 平常脈이라고 한다. 이 數에 어긋나면 停止하는 現狀이 나타나는 것이니, 腎氣가 이를 수 없으면 40 搏動에 一回 停止하고, 肝氣가 이를 수 없으면 30 搏動에 一回 停止하니, 대개 一藏의 氣가 衰盡하면 다른 藏의 氣가 대신 이르는 것이다. 《內經》에 '代脈이 나타나면 氣가 衰盡된 것이다.'고 하였고, 滑伯仁이 말하기를 '아무 病 없이 몸이 羸瘦하고 代脈이 나타나면 危殆로운 脈이고,

病이 있어서 氣血이 점차 損傷되어 氣가 接續되지 않아 代脈이 나타나는 것은 다만 病脈일 뿐이고, 傷寒에 心悸症이 있고 代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復脈湯을 主治方으로 쓴다.'고 하였다. 妊娠중에 代脈이 나타나는 것은 入胎後 百日에 나타나니 生死를 分辨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하였고,

또한, 《瀕湖脈學》에서 戴同父가 말하기를 “代脈을 診脈할 때 반드시 五十動을 채운다는 것은 《難經》으로부터 나왔는데, 《脈訣·五臟謬》에 四十五動을 기준으로 삼았으니 《難經》과는 사뭇 다르다.”고 하였다.

《脈語》에 “무릇 停止하여 되돌아오기 어렵다면 이는 그치는 것이니 어떻게 代라고 말하며, 本藏의 氣가 끊어지면 他藏도 반드시 이로 因하여 病이 發生하게 되니 他藏이 代身한다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脈學輯要』에 李士梓는 “代는 자리를 바꾸어 준다는 뜻이니, 四時의 자리바꿈이 그 時期를 어기지 않는 것과 같다. 結·促脈이 中止하는 것은 一定한 수가 없으나 代脈이 中止하는 것은 一定한 수가 있고, 結·促脈이 그치는 것은 한번 그치고 곧 다시 搏動하나 代脈이 그치는 것은 한참 있어야 바야흐로 다시 搏動하니 《內經》에 ‘復脈이 나타나면 藏氣가 衰微하고 脾氣가 脫絶된 것으로 診斷한다.’고 하였다. 오직 傷寒의 心悸와 妊娠三月과 或 七情太過와 或 跌仆로 인하여 重傷을 입었을 때나 또한 風家·痛家は 모두 代脈을 꺼리지 아니하니, 반드시 死證으로 診斷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고, 錢天來는 “代는 替代한다는 뜻의 代이다. 氣血이 虛弱하고 眞氣가 衰微하므로 힘이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

여 代身할 것을 求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搏動이 中止되었다가 곧 다시 搏動하지 않고 마치 搏動하지 않을 것 같은 形狀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되돌아 올 수 없다.’고 하며, 또 얼마 있다가 다시 搏動하기 때문에 ‘이어서 다시 搏動한다.’고 하는 것이다.”고 하였고, 張景岳은 “代는 更代의 뜻이니, 平脈가운데 갑자기 軟弱하게 나타나거나, 혹은 빨라졌다 하거나, 혹은 끊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모두 代脈이라고 하나, 代는 본래 한가지 뜻이 아니어서 각각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가령 50搏動에 한번도 更代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搏動數의 代脈이니 바로 「根結篇」에서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고, 만약 脈이 본래 平均하다가 갑자기 強하거나 弱하여 지는 것은 곧 形體의 代脈이니 바로 「平人氣象論」에서 말한 것이 이것이고, 또 脾는 四季를 主宰하여 때를 따라 更代하는 것은 氣候로 인한 代脈이니 바로 「宣明五氣篇」 등에서 말한 것이 이것이다. 이것은 藏氣의 正常的인 證候를 말한 것이지 代脈이 中止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脈에 一定한 모양이 없고 變更되어 正常이 아닌 것을 모두 代脈이라고 하나, 다만 각각 그 變化에 따라 그 病情을 살피면 거의 그 奧妙함을 攄得(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難經》 11難에 “정상인의 呼吸과 脈搏의 수는 당연히 일정한 비율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한 번 呼吸에 脈이 4~5번 搏動하므로 『素問·平人氣象論』에 ‘사람이 숨을 한 번 내쉴 때에 脈이 2번 搏動하고, 들여쉴 때에 脈이 2번 搏動하며, 한 번 呼吸하고 잠깐 쉴 때에 脈이 5번 搏動하고, 가끔 한숨을 쉬는 것을 平常人이라 한다.’고 하

였다. 이는 정상인의 呼吸과 脈搏數의 비율을 설명한 것이다. 本難은 古醫經에 ‘脈이 50搏動 以內에 한 번 停止한다.’고 한 脈象을 引用하여 內臟 가운데 어느 한 臟의 氣가 衰竭된 것인지를 推測하였다. 原文에 서술한 것에 依據하면 腎氣가 먼저 竭盡된 것이다.

《靈樞·根結篇》에 ‘人體 經脈의 氣는 하루에 온 몸을 50번 돌아 五臟의 精氣를 運轉시키니, 이 回數에 相應하지 않는 것을 ‘狂生’이라고 한다. 50번 도는 것은 五臟이 모두 精氣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寸口를 짚어 脈의 搏動數를 세어 보면 五臟氣의 盛衰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가령 50搏動 이내에 한 번도 그치지 않으면 五臟이 모두 氣를 받은 것이고, 40搏動에 한번 그치면 한 臟에 氣가 없는 것이며, 30搏動에 한 번 그치면 두 臟에 氣가 없는 것이다.’고 하였다. 이는 本難의 內容과 비슷한 점이 있으니, 두 가지 모두 臟의 氣가 衰竭하면 脈搏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脈搏이 搏動하다가 中止하는 것은 臟氣에 衰竭이 발생한 反映임을 說明한 것이다. 그러므로, 脈搏이 搏動하다가 中止하는 回數가 많으면 많을수록 臟氣가 衰竭된 領域이 더욱 넓은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呼吸과 內臟과의 관계에 대하여 「第四難」에 ‘내쉬는 숨은 心·肺와 관계가 있고, 들며 마시는 숨은 肝·腎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心·肺는 위에 있으므로 陽에 속하고, 肝·腎은 아래에 있으므로 陰에 속하는 것을 말한 것이니, 本難에 말한 ‘숨을 들며 마실 때에는 공기가 陰을 따라서 들어가고, 내쉴 때에는 공기가 陽을 따라 나간다.’고 한 것도 바로 四臟이 자리잡고 있는 위치상의 陰陽을 가리킨 것이다. 脈이

50搏動 以內에 한 번 停止하는 것은 呼吸하는 氣가 腎까지 깊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고, 腎의 위치가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腎氣가 받아 들이지 못하면 吸氣가 들어가지 못하므로 腎氣가 먼저 竭盡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滑伯仁이 말하기를 ‘五臟에서 腎이 가장 아래에 있어서 吸氣를 가장 늦게 받는다. 만약 脈이 50搏動을 채우지 못하고 한 번 停止하면 腎이 기댈 곳이 없어서 氣가 바로 먼저 ‘盡’하게 됨을 알 수 있으니, ‘盡’은 衰竭의 뜻이고, 衰竭하게 되면 다른 臟氣를 따라서 上行할 수가 없는 것이다.’고 하였다. 또 가령 脈이 40搏動에 한 번 그치거나 30搏動에 그치는 것은 肝과 脾의 氣가 안에서 끊어진 것이니 동일한 方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總括하면 本難은 內臟과 呼吸에 따른 脈搏과의 關係를 설명한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中醫診斷學》에서는 아래와 같이 ‘代脈’에 관하여 定義를 내리고 있다.

첫째, 脈象에 관하여서 《脈經》에서는 ‘來數中止’라고, 《活人書》에서는 ‘緩動而中止’라고 하였다. ‘代脈’은 臟氣가 微衰해져서 發生한 病證에는 ‘遲緩脈’을 兼하고, 痛證과 風證 및 驚恐의 病證에는 ‘數脈’을 兼한다.

둘째, ‘結脈’ 및 ‘促脈’과의 鑑別에 관하여서는 ‘結·促脈’ 모두 不規則하게 멈추고, 멈추는 시간이 짧다. 이와 반면에 ‘代脈’은 規則적으로 멈추고, 멈추는 시간은 相對적으로 조금 길다. 또한, ‘促脈’은 脈이 數하면서 멈추는 것이 있고, ‘結脈’은 遲緩하면서 멈추는 것이 있다.

셋째, 主病에 관하여서는 《素問·脈要精微論》에 ‘代則氣衰’라고 하였듯이 臟氣가 微衰한 결과로 인하여 疾患이 주로 나타난다.

《診家樞要》에서는 “代는 형체와 얼굴이 새파랗게 야위어서 能히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病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 사람이 새파랗게 야위었으면 그 脈은 代止하니, 이것은 한 臟에 氣가 없어서 다른 臟이 그 脈을 대신한 것이므로 위험한 徵兆이다.”고 하였고, 《診家正眼》下卷에 “代脈은 臟氣가 衰할 때 나타나는 위험한 脈象이니 脾土의 機能이 완전히 망가지면 오랫동안 吐利를 하게 되고, 寒에 感觸되어 飲食을 먹지 못하며, 또한 심한 腹痛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臟氣가 微衰하지 않았는데도 ‘代脈’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診家正眼》에 “傷寒 心悸와 妊娠 3個月과 七情의 太過, 打撲損傷, 風證, 痛證에도 代脈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傷寒論·辨太陽病脈證并治》에서는 “傷寒에 脈이 結代하면 心動悸하니 炙甘草湯으로 治療한다.”고 하여 心血不足, 心陽不振으로 인하여 結代脈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臟氣微衰의 危險한 證候는 아니라고 하였다.

그밖에, 《四診抉微》7卷에 “어떤 사람은 先天的으로 태어날 때부터 經脈에 막힌 것이 있고 狹窄되어서 血液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때때로 멈추는 것이 있으니 代脈에 무리에 속한다.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변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先天的인 것이니 病脈인 代脈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先哲들이 일찌기 言及한 것으로서 내가 일찌기 이런 사람을 여럿 經驗해 보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았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삼가 잘 알고 이해하여, 함부로 판단해서 藥을 투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各 醫書의 內容들을 詳考하면 ‘代

脈’은 ‘搏動이 一定하지 않은 것’ 卽 ‘搏動數의 變更’을 말하는 것이니 ‘一定한 搏動數에 中止한다.’는 本篇의 內容은 다소 억지스러움이 있다고 思料된다.

그리고, 《醫學入門》에 脈이 代하면 얼마가지 못해서 죽는다고 하였으나, 건강한 사람한테서도 일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疾患을 가진 사람이 代脈이 있다고 하여서 반드시 죽게 되는 것만은 아니므로 《醫學入門》의 말은 理致에 다소 어긋난 것으로 思料된다. 《脈語》의 內容에 依據하여 ‘各藏이 無氣하다.’고 하는 것은 ‘氣가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氣가 微弱하다.’ 내지는 ‘正常的인 作用을 하지 못한다.’라고 解釋을 하는 것이 本文의 趣旨에 違背되지 않는다고 思料된다. 따라서, 直譯과 意譯은 여기에서 考察한 內容을 따르고자 한다.

一藏無氣는 腎에, 二藏無氣는 肝에, 三藏無氣는 脾에, 四藏無氣는 心에, 五藏無氣는 肺에 氣가 다다르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五藏의 解剖學的인 位置를 가지고서 說明한 것이다.

楊 등은 順次的으로 한 藏들이 ‘無氣’한다고 하였고, 馬 등은 몇 개의 藏들이 함께 ‘無氣’한다고 하여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하였으나, 한 藏이 ‘無氣’하면 그 아래에 있는 藏은 당연히 正常的인 狀態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은 서로 같은 의미로서 이야기한 것으로 思料된다.

本 論文에서 考察한 醫書 以外에도 ‘代脈’에 관하여 많은 醫家들이 언급을 하였지만, 그 內容들이 위에서 말한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省略을 하고자 한다.

【直譯】

一晝夜에 50번을 循環하여(五十營) 五藏의

精氣를 運行시키니, 脈搏이 이 數에 맞지 않는 것을 狂生이라고 합니다.

五十營이란 五藏이 모두 氣를 받는 숫자이니 그 사람의 脈口를 잡아 搏動하는 數를 세어서 50번 搏動에 한 번도 멈추지 않으면 五藏이 모두 氣를 받는 것이고,

40번 搏動에 한 번 멈추는 것은 一藏의 氣가,

30번 搏動에 한 번 멈추는 것은 二藏의 氣가,

20번 搏動에 한 번 멈추는 것은 三藏의 氣가,

10번 搏動에 한 번 멈추는 것은 四藏의 氣가,

10번도 안되어서 한 번 멈추는 것은 五藏의 氣가 모두 없는 것이니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고 豫測을 할 수가 있으며, 그 要點은 終始에 있습니다. 50번 搏動에 한 번도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正常脈이 되니 이로써 五藏의 상태를 알 수가 있고, 死期를 예측할 수 있는 脈은 잠깐 빨랐다 느렸다 합니다.

第 4章 虛實補瀉의 法則

第 1節 體質에 따른 鍼灸 治療法

【原文】

黃帝曰 逆順五體者¹⁾는 言人骨節之小大와 肉之堅脆¹⁾와 皮之厚薄과 血之清濁과 氣之滑澁과 脈之長短과 血之多少니 經絡之數는 余已知之矣니 此는 皆布衣²⁾匹夫³⁾之士也라 夫王公⁴⁾大人⁵⁾과 血食之君²⁾은 身體柔脆³⁾하고 肌肉軟弱⁴⁾하며 血氣慄⁶⁾悍⁵⁾滑利하니 其刺之徐⁸⁾疾⁹⁾에 淺深多少¹⁾를 可得同之乎잇가

岐伯이 答曰 膏粱⁶⁾(¹⁰⁾과 菽¹¹⁾藿¹²⁾之味를 何可同也리오 氣滑卽出疾⁷⁾하고 其氣澁⁸⁾則 出遲하니 氣悍⁹⁾則鍼小而入淺하고 氣澁則鍼大而入深하며 深則欲留하고 淺則欲疾²⁾이라 以此觀之면 刺布衣者¹⁰⁾는 深以留之하고 刺大人者¹¹⁾는 微以徐之니 此는 皆因氣慄悍滑利也¹²⁾(³⁾니이다

【校勘】

- 1) 逆順五體者 ; 《太素》 22권 「刺法」 에는 '逆順五體'로 되어 있다.
- 2) 血食之君 ; 《甲乙》 5권 제 6에는 '食血者'로 되어 있다.
- 3) 身體柔脆 ; 《甲乙》 5권 제 6에는 '身體空虛'로 되어 있다.
- 4) 肌肉軟弱 ; 《太素》 22권 「刺法」 에는 '肌肉奕弱'으로, 《甲乙》 5권 제 6에는 '皮肉奕弱'으로 되어 있다.
- 5) 慄悍 ; 《熊本》 에는 '漂彡旱'으로 되어 있다.
- 6) 膏粱 ; 《太素》 22권 「刺法」 및 《甲乙》 5권 제 6에는 '夫膏粱'으로 되어 있다.
- 7) 氣滑卽出疾 ; 《太素》 22권 「刺法」 및 《甲乙》 5권 제 6에는 '氣滑則出疾'로 되어 있다.
- 8) 其氣澁 ; 《太素》 22권 「刺法」 및 《甲乙》 5권 제 6에는 '氣澁'으로 되어 있다.
- 9) 氣悍 ; 《熊本》 에는 '氣彡旱'으로 되어 있다.
- 10) 刺布衣者 ; 《甲乙》 5권 제 6에는 '故刺布衣者'로 되어 있다.
- 11) 刺大人者 ; 《甲乙》 5권 제 6에는 '刺王公大人'으로 되어 있다.
- 12) 氣慄悍滑利也 ; 《甲乙》 5권 제 6에는 '其氣之慄悍滑利也'로 되어 있다.

【考察】

[校勘에 대한 考察]

▶ 《校釋》에 “孫鼎宜는 ‘逆順五體’는 古經의 篇名이 아닌가 한다고 했는데, 劉衡如 《靈樞經》 校語에, ‘逆順五體’는 바로 本書 제 38篇의 篇名으로 今本에는 ‘逆順肥瘦’로 되어 있다.”고 했다.

「逆順肥瘦篇」의 內容을 살펴보면, ‘逆順’은 ‘自然의 理致에 따른다.’는 뜻이며 ‘肥瘦’는 ‘體質의 強弱’을 뜻한다. 主要 內容은 體質의 強弱에 따라서 無理가 없는 刺法을 實施하는 方法에 대하여 論하고 있다.

따라서, ‘逆順五體’를 ‘逆順肥瘦’로 바꾸는 것이 全體의인 文章의 흐름상 原文의 趣旨에 가장 符合될 것으로 思料된다.

▶ 《校釋》에 “‘悍’은 아마 ‘滑’의 잘못된 글자인 것 같다. 上文에서 ‘氣滑’, ‘氣澁’의 出鍼을 말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시 ‘氣滑’, ‘氣澁’의 入鍼을 말해야 對文이 되는데, 만약 ‘氣悍’이라고 한다면 합당치 않을 것 같다. 《熊本》에는 ‘彳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滑’을 ‘彳阜’로 잘못 보았고, 또 ‘悍’을 ‘彳阜’로 잘못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悍’에는 빠르다는 의미가 있어서 ‘滑’의 의미를 內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빠르다는 것은 매끄럽지 않으면 可能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校釋》의 考察한 內容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전부 옳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思料된다.

[校註에 대한 考察]

▶ ‘逆順五體者’에 관하여

馬 等은 ‘五體’라는 것은 《靈樞·陰陽二十五人篇》에 나오는 다섯 가지 類型의 사람

이다.’고 하였고, 張은 ‘三陰三陽의 氣가 皮膚·經脈의 안팎을 出入하여 서로 逆順하는 것이다.’고 하였고, 譯釋 等은 ‘古經의 篇名으로 「逆順肥瘦篇」이다.’고 하였다.

楊은 ‘50번을 다 채우고 代하는 것을 順, 50번을 다 채우지 못하고 代하는 것을 逆’이라고 하였다. 또한, 《靈樞·逆順肥瘦篇》과 《靈樞·逆順篇》을 살펴보면 ‘逆’은 自然의 順理에 어긋나는 것, ‘順’은 自然의 順理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內經》에서는 특히 病者의 體質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각자의 體質이 같지 않기 때문에 걸리기 쉬운 疾病도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靈樞·五變編》에서는 ‘身體에 따라 病이 發生한다.’고 하였고, 《靈樞·逆順肥瘦篇》에서는 ‘體質이 같지 않기 때문에 病의 治療 方法도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靈樞·通天篇》에서는 5가지 類型으로, 《靈樞·陰陽二十五人篇》에서는 25種類의 類型으로 分類하였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靈樞·通天篇》에서는 太陰人, 少陰人, 太陽人, 少陽人, 陰陽和平之人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종류의 사람의 類型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靈樞·陰陽二十五人篇》에서는 五行의 觀點에서 木形人, 火形人, 土形人, 金形人, 水形人이라고하여 인간을 크게 다섯 가지 類型으로 分類하였고, 이 類型 하나 하나를 다시 角·徵·宮·商·羽의 五音에 의한 다섯 種類의 작은 類型으로 分類하고 있다. 즉, 인간이 전부 25種의 類型으로 分類되고 있는 것이다.

以上の 內容들을 정리해보면, ‘逆順五體者’는 ‘사람마다 각자 體質이 다르므로 天地自然의 理致에 따라서 治療를 하는 것이 ‘順’

이 되고, 따르지 않는 것이 '逆'이 된다.'고 解釋하는 것이 適合할 것 같다. 그러므로, '逆順五體'는 '逆順肥瘦'가 되어야 文義에 가장 符合될 것으로 思料된다.

▶ '出疾'과 '出遲'에 관하여

馬와 白話는 '徐疾補瀉'의 관점에서 景岳과 張은 '氣의 感應'으로 해석을 하였는데, 전체적인 의미는 서로 큰 차이는 없으므로 思料된다. 왜냐하면, 氣의 感應이 빠르고 느린 것에 따라서 徐疾補瀉를 實施하기 때문이다.

▶ '布衣者'와 '大人者'에 관하여

여기에서 '布衣'와 '大人'은 職位와 身分을, '膏粱'과 '菽藿'은 生活習慣을 의미한다. 또한, 布衣者는 氣가 결끄러우므로 굵은 鍼으로 깊게 刺鍼하여 오랫동안 留鍼하고, 大人者는 氣가 빠르면서 매끄러우므로 가는 鍼으로 얇게 刺鍼하여 빨리 拔鍼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一般的으로 大人은 잘 먹기만 하고 몸을 움직이는 일을 별로 하지 않으므로 살이 쪼서 深刺를 해야 할 것 같고, 布衣는 영양가가 없는 飲食을 먹고 주로 勞動만 하기 때문에 살이 말라서 淺刺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素問·刺齊論》에서 “身體가 마르고 弱한 사람은 淺刺하고, 強健하고 뚱뚱한 사람은 深刺를 한다.”고 하여 本篇의 內容과는 다소 다른 側面에서 言及을 하였다. 따라서, 深思熟考해보면 本篇은 氣의 滑澁과 사람의 敏感度로써 刺鍼 方法을 分類한 것으로 思料된다.

참고로 鄭의 <素問·刺齊論에 대한 연구>의 考察에 나오는 表를 참조하였다. 그 表는 아래와 같다.

| | 淺 刺 | 深 刺 |
|----|-------------------------|-------------------------|
| 體質 | 身體瘦弱者 | 身強體肥者 |
| 年齡 | 年老體弱 及小兒嬌嫩之本 | 中青年 |
| 病情 | 陽證, 新病 | 陰證, 久病 |
| 部位 | 頭, 面, 胸背 및 皮膚肉少處의 輸血 | 四肢, 臂, 腹 및 肌肉豐滿處의 輸血 |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逆順五體는 사람의 骨節의 大小와 肌肉의 堅脆와 皮膚의 厚薄과 血의 淸濁과 氣의 滑澁과 脈의 長短과 血의 多少를 말하는 것이니 經絡의 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이룰 아는 것이니 이는 모두 布衣·匹夫의 경우입니다. 무릇 王公·大人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는 사람은 몸이 柔弱하고 肌肉이 軟弱하며 氣血이 빠르고 세차며 매끄러우니 刺鍼할 때에 刺鍼하는 속도의 느리고 빠름과, 刺鍼하는 깊이의 얇고 깊음과, 刺鍼하는 數의 많고 적음을 어떻게 같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岐伯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膏粱의 기름진 음식과 菽藿의 거친 음식을 먹는 사람을 어찌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氣가 매끄러우면 빨리 拔鍼을 해야 하고 氣가 结끄러우면 천천히 拔鍼을 해야 하며, 氣가 세차면 가는 鍼으로 얇게 刺鍼하고 氣가 结끄러우면 굵은 鍼으로 깊게 刺入하여야 하니, 깊게 刺入한 것은 오래 留鍼하여야 하고, 얇게 刺鍼한 것은 빨리 拔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본다면 布衣·匹夫를 刺鍼할 때는 刺入을 깊이 하여 머무르게 할 것이고, 王公·大人을 刺鍼할 때는 얇게 刺鍼하여 이를 천천히 할 것이니, 이것은 모두 氣가 빠르고 매끄럽기 때문입니다.”

第 2節 補瀉法

【原文】

黃帝曰 形氣之逆順은 奈何오

岐伯이 曰 形氣不足하고 病氣有餘하면 是는 邪勝也니 急瀉之하고 形氣有餘하고 病氣不足하면 急補之¹⁾요 形氣不足하고 病氣不足하면 此는 陰陽氣俱不足也라 不可刺之¹⁾니 刺之 則重¹⁾不足하고 重不足 則陰陽俱竭하며 血氣皆盡하야 五藏空虛하고 筋骨髓枯하니 老者는 絶滅²⁾하고 壯者는 不復矣²⁾라 形氣有餘하고 病氣有餘하면 此는 謂陰陽俱有餘也니 急瀉其邪²⁾하고 調其虛實³⁾이라 故로 曰 有餘者瀉之하고 不足者補之가 此之謂也이니이다

故로 曰 刺不知逆順이면 眞邪相搏³⁾⁽³⁾⁽⁴⁾이라하니 滿而補之⁴⁾ 則陰陽四溢⁵⁾⁽⁴⁾하고 腸胃充郭⁵⁾하며 肝肺內脹⁶⁾⁽⁶⁾하야 陰陽相錯⁷⁾⁽⁵⁾이라 虛而瀉之 則經脈空虛하고 血氣竭枯하며 腸胃僭辟⁷⁾⁽⁸⁾하고 皮膚薄著⁹⁾하며 毛腠¹⁰⁾夭焦⁸⁾⁽¹¹⁾하니 予之死期⁶⁾라 故로 曰用鍼之要는 在於知調陰與陽⁹⁾이라하니 調陰與陽이면 精氣乃光¹⁰⁾하고 合形與氣하야 使神內藏 故로 曰上工은 平氣요 中工은 亂脈이요 下工은 絶氣危生라 故로 曰下工¹¹⁾은 不可不慎也⁷⁾니 必審五藏變化之病¹²⁾과 五脈之應¹³⁾과 經絡¹⁴⁾之實虛과 皮之柔粗¹⁵⁾ 而後에 取之也이니이다

【校勘】

- 1) 不可刺之 ; 《甲乙》 5권 제 6에는 ‘不可復刺之’로 되어 있다.
- 2) 急瀉其邪 ; 《馬注本》, 《張注本》에는 모두 ‘當瀉其邪’로 되어 있다.
- 3) 眞邪相搏 ; 《太素》 22권 「刺法」 및 《甲乙》 5권 제 6에는 모두 ‘眞邪相薄’으로 되어 있다.

- 4) 滿而補之 ; 《甲乙》 5권 제 6에는 ‘實而補之’로 되어 있다.
- 5) 陰陽四溢 ; 《甲乙》 5권 제 6에는 ‘陰陽血氣皆溢’로 되어 있다.
- 6) 肝肺內脹 ; 《甲乙》 5권 제 6에는 ‘肝肺內脹’으로, 《太素》 22권 「刺法」에는 ‘肝肺內臞’으로 되어 있다.
- 7) 腸胃僭辟 ; 《太素》 22권 「刺法」에는 ‘腸胃攝辟’으로, 《甲乙》 5권 제 6에는 ‘腸胃僭辟’으로 되어 있다.
- 8) 毛腠夭焦 ; 《太素》 22권 「刺法」 및 《甲乙》 5권 제 6에는 ‘毛腠夭焦’로 되어 있다.
- 9) 在於知調陰與陽 ; 《太素》 22권 「刺法」에는 ‘在乎知調陰與陽’로 되어 있다.
- 10) 精氣乃光 ; 《甲乙》 5권 제 6에는 ‘精氣乃充’으로 되어 있다.
- 11) 故曰下工 ; 《甲乙》 5권 제 6에는 이四字가 없고, 《太素》 22권 「刺法」에는 ‘故下工’으로 되어 있다.
- 12) 必審五藏變化之病 ; 《太素》 22권 「刺法」에는 ‘必審其五藏變化之病’으로, 《甲乙》 5권 제 6에는 ‘必察其五臟之變化’로 되어 있다.
- 13) 五脈之應 ; 《甲乙》 5권 제 6에는 ‘五脈之相應’으로 되어 있다.
- 14) 經絡 ; 《甲乙》 5권 제 6에는 ‘經脈’으로 되어 있다.
- 15) 皮之柔粗 ; 《甲乙》 5권 제 6에는 ‘皮膚之柔粗’로 되어 있다.

【考察】

【校勘에 대한 考察】

▶ ‘眞邪相搏’에 관하여
《太素》와 《甲乙》에는 ‘眞邪相薄’으로 되어 있는데, ‘搏’은 ‘擊’의 뜻으로 ‘공격하다.’는

뜻이 있고, ‘薄’은 ‘迫’의 뜻으로 ‘빽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搏’과 ‘薄’은 서로 그 의미가 통한다고 할 수가 있다.

▶‘陰陽四溢’에 관하여

‘陰陽四溢’에 대하여 楊을 제외한 各家의 注釋을 살펴보면 ‘四’에는 ‘皆’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原文의 內容을 詳考하면, 여기에서의 ‘四’는 ‘天地四方’을 뜻한다. 그러므로, 《甲乙》의 ‘陰陽血氣皆溢’은 原文의 趣旨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었다고 思料된다.

▶‘肝肺內脹’에 관하여

《甲乙》에는 ‘肝肺內脹’으로, 《太素》 ‘肝肺內脹’으로 되어 있다. 《校釋》에 “살펴보면 ‘脹’은 ‘臞’과 의미가 통한다. 《玉篇》에 《埤蒼》을 인용한 곳을 보면 ‘臞, 引起也’라고 하였고, 《廣雅·釋詁》에는 ‘臞, 張也’라 했으니 ‘臞’과 ‘臞’二字는 의미가 비슷하고, ‘臞’은 ‘滿’의 뜻이 있으므로 三字가 모두 통한다.”고 하였다.

《校釋》의 考察한 內容을 살펴보면 ‘臞’, ‘臞’, ‘臞’字 모두는 ‘크다.’ 내지는 ‘가득 차다.’라는 의미를 內包하고 있다.

따라서, 《甲乙》과 《太素》의 原文도 本文의 意味에는 크게 違背되지는 않는다고 思料된다.

▶‘腸胃攝辟’에 관하여

《太素》에는 ‘腸胃攝辟’으로, 《甲乙》에는 ‘腸胃攝辟’으로 되어 있다. 《校釋》에 “살펴보면 ‘攝’, ‘攝’, ‘攝’三字는 모두 通用된다. 《素問·調經論》에 ‘虛者, 攝辟氣不足.’이라 하였고, 《太素》 24권 「虛實所生篇」에 ‘攝’이 ‘攝’으로, 《甲乙》 6권 제 3에 ‘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고 하였다.

《明文漢韓大字典》에 의하면 ‘攝’은 ‘攝’과 通用되고 ‘攝(두려워하다)’의 뜻이다.

▶‘毛腠夭焦’에 관하여

《太素》와 《甲乙》에는 ‘毛腠夭焦’로 되어 있다. 《校釋》에 “살펴보면 ‘焦’, ‘焦’, ‘焦’三字는 通用된다.”고 하였다.

‘焦’와 ‘焦’는 ‘그을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같은 글자로서 살이 빠지면 潤澤이 없어져서 마치 불에 그을린 것 같은 色이 되므로 ‘肉不滿’의 뜻을 內包하고 있는 ‘焦’와 함께 通用되어 질 수가 있다.

따라서, 《太素》와 《甲乙》의 原文도 本文의 趣旨에 違背됨이 없다고 思料된다.

▶‘精氣乃光’에 관하여

‘精氣乃光’은 精氣가 가득 차서 빛이 난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고, ‘光’에는 ‘華(內部가 盛해서 밖으로 비치는 것)’의 뜻이 있으므로 《甲乙》의 ‘精氣乃充’으로 하는 것이 原文의 趣旨에 보다 符合될 것으로 思料된다. 《語譯》, 《譯釋》等 많은 後代 醫書들의 解釋 또한 ‘充滿’, ‘充足’의 뜻으로 되어 있다.

[校註에 대한 考察]

▶‘形氣’와 ‘病氣’에 관하여

楊 등은 ‘形氣’는 ‘形體의 氣’, ‘病氣’는 ‘病이 있는 藏府의 氣’라고 하였고, 張은 ‘形氣’는 ‘皮肉筋骨의 形氣’, ‘病氣’는 ‘三陰三陽 經絡의 氣가 邪氣로 인하여 病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章은 楊 등과 같은 見解로서 解釋을 하였고, 語譯은 ‘形氣’는 ‘神氣’, ‘病氣’는 ‘眞氣’라고 하였고, 校釋 등은 ‘形氣’는 ‘사람의 形體와 神氣’, ‘病氣’는 ‘邪氣가 侵入하여 病이 된 以後에 正氣와 邪氣가 서로 싸우면서 反映한 症狀’이라고 하였다.

대개 ‘邪氣’라는 것은 身體의 外部에 存在

하는 病因을, ‘虛’라는 것은 身體의 內部에 있는 病因을 말한다. 그리고, 體內的 病因이 없으면 體外에 病因이 存在하고 있어도 病을 일으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形氣’는 ‘사람의 形體와 神氣’로, 病氣’는 ‘人體 內部的 正氣虛로 因하여 邪氣가 侵入하게 되어서 病이 發現되는 樣相’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原文의 趣旨에 適合하다고 思料된다.

▶‘陰陽四溢’에 관하여

楊은 ‘陰陽의 氣가 四肢로 넘쳐나게 되는 것’, 馬 等은 ‘陰陽 各 經絡의 血氣가 가득 차서 밖으로 모두 넘쳐흐르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뒤의 文章에 나오는 腸胃充郭, 肝肺內臟 等の 症狀들처럼 陰陽의 氣가 넘쳐나면 四肢뿐만 아니라 五藏六府에도 病이 나타나게 되므로 馬 等の 注釋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思料된다.

▶‘腸胃僣辟’에 관하여

楊은 ‘腸胃에 氣가 없는 것’이라고, 馬는 ‘腸胃가 치우쳐서 포개지는 것’이라고, 景岳은 ‘僣은 두려워하는 것이며 辟은 邪氣가 치우쳐서 바르지 않는 것’이라고, 張 等은 ‘僣은 겁이 많은 것이며 辟은 치우쳐서 쌓인다는 것’이라고, 丹波 等은 ‘피부가 주름져서 포개지는 것’이라고, 校釋은 ‘軟弱하고 無力해져서 邪氣가 그득하다는 뜻’이라고 하여 各 注釋家들이 全部 虛弱하고 늘어져서 그 결과 外部로 薄著된 모양을 말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胃腸이 下垂된 모양을 形容한 것으로서 各家의 注釋들이 原文에 뜻에 크게 違背됨은 없다고 思料된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形氣의 逆과 順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形氣가 不足하고 病氣가 有餘하면 이것은 邪氣가 우세한 것이니 급히 이를 瀉하고, 形氣가 有餘하고 病氣가 不足하면 급히 正氣를 補해야 하며, 形氣가 不足하고 病氣도 不足하면 이는 陰陽의 氣가 모두 不足한 것이니 刺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刺鍼을 하게 되면 不足한 것이 거듭하여 不足해지고, 거듭하여 不足해지면 陰陽과 血氣가 모두 竭盡되어 五藏이 空虛하게 되고, 筋·骨·髓가 모두 枯渴되니 노인의 경우에는 죽게 되고, 젊은이의 경우에는 恢復할 수가 없게 됩니다. 形氣가 有餘하고 病氣도 有餘하면 이는 陰陽이 모두 有餘한 것이니 급히 그 邪氣를 瀉한 뒤에 虛實을 調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有餘한 것은 瀉하고, 不足한 것은 補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刺鍼할 때 逆과 順을 알지 못하면 眞氣와 邪氣가 서로 相搏한다고 하였으니 邪氣가 充滿한데다가 補하게 되면 陰陽이 사방으로 넘치고, 腸胃가 막혀서 氣가 通하지 않게 되며, 肝과 肺가 內部에서 脹滿하여 陰陽이 서로 뒤섞이게 됩니다. 正氣가 虛한 것을 瀉하면 經脈이 空虛해지고, 血氣가 枯渴되며, 腸胃가 虛弱해지고, 皮膚가 말라 까칠해지니 죽을 때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鍼을 사용하는 要點는 陰과 陽의 조절을 아는데 있다고 하니 陰과 陽이 調節하면 精氣가 채워지고, 形과 氣가 合致되며, 神이 內部에 간직되므로 上工은 氣를 和平하게 하나, 中工은 脈을 扞亂하게 하며, 下工은 氣를 斷絶시켜서 生命을 위태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下工은 삼가지 않아서는 안되

나, 반드시 五臟變化의 病證과 五脈의 相應과 經絡의 虛實과 皮膚의 부드러움과 거친 것을 살핀 후에 刺鍼하여야 합니다.

V. 結 語

《靈樞·根結篇》에 대한 關聯 文獻을 校勘하고, 各家의 註釋을 比較·研究하여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根'은 四肢末端에 있는 穴로서 '脈氣의 根本이 되는 곳'으로, '結'은 頭·胸·腹部에 있는 穴로서 '脈氣가 結聚되는 곳'의 뜻으로 解釋하는 것이 옳다고 思料된다.
2. 제 1章의 '發於春夏'와 '發於秋冬'의 '發'은 '發病'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思料된다.
3. 제 1章의 '要在終始'에서 '終始'는 《靈樞·終始篇》을 指稱한다.
4. 제 2章 1節의 '骨繇病'은 西洋醫學의 '骨關節炎', '骨多孔證', '關節 周圍의 筋肉이나 靱帶 損傷', '筋無力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思料된다.
5. 제 2章 2節의 '喜悲'에서의 '喜'는 '善', '好', '良'의 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思料된다.
6. 제 2章 2節의 '太倉'은 '中脘'이다.
7. 제 3章 1節의 '天容'은 '天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思料된다.
8. 제 3章 1節의 '十二經脈'은 '手足三陽經의 左右를 合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思料된다.
9. 제 3章 1節의 '無氣'는 '精氣의 作用이 微弱하다'로 보는 것이 옳다고 思料된다.
10. 제 4章 1節의 '逆順'은 '自然의 이치에

따르는 것을 順, 거스르는 것을 逆'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思料된다.

11. 제 4章 2節의 '眞邪相搏'의 '搏'은 '薄'과 같다.
12. 제 4章 2節의 '陰陽四溢'의 '四'는 天地四方이라는 뜻이 있어서 '皆'와 뜻이 서로 통하므로, '陰陽皆溢'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좀 더 明確할 것으로 思料된다.
13. 제 4章 2節의 '腸胃儻辟'은 西洋醫學의 '胃腸의 下垂와 매우 밀접한 關係가 있다.
14. 제 4章 2節의 '精氣乃光'은 '精氣乃充'으로 하여야 의미가 좀 더 明確해질 것으로 思料된다.

參 考 文 獻

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대성문화사, 서울, 1986.
2. 楊上善 著·蕭延平 按, 《黃帝內經太素》, 出版社·年度未詳
3. 王水撰, 《靈樞經》, 대만중화서국, 대북, 1972.
4. 陳夢雷 等編,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醫經註釋下》, 인민위생출판사, 북경, 1988.
5. 馬蒔·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대련국풍출판사, 대북, 1981.
6. 張介賓, 《類經簡字本》, 성보출판사, 서울, 1982.
7. 張介賓, 《類經正字本》, 대성문화사, 서울, 1982.
8. 黃元御, 《靈樞懸解》, 인민위생출판사, 북경, 1990.
9. 丹波元間, 《靈樞識》, 인민위생출판사, 북경, 1984.

10. 陳璧琬·鄭卓人, 《靈樞經白話解》, 인민위생출판사, 1963.
11.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대련국풍출판사, 대북, 1976.
12. 郭藹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천진과학기술출판사, 천진, 1989.
13.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인민위생출판사, 북경, 1982.
14.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인민위생출판사, 북경, 1986.
15. 李今庸, 《新編黃帝內經綱目》, 상해과학기술출판사, 상해, 1988.
16. 皇甫謐, 《黃帝鍼灸甲乙經》, 宏業書局有限公司, 대북, 1976.
17. 皇甫謐 著·山東中醫學院 校釋, 《鍼灸甲乙經校釋》, 인민위생출판사, 북경, 1979.
18. 宗全和, 《靈樞經》, 춘추출판사, 북경, 1988.
19. 南京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譯釋》, 상해과학기술출판사, 남경, 1959.
20. 鄭憲瑩, 〈素問·刺齊論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학회지, 서울, 1996.
21. 李宗淳, 〈素問·陰陽離合論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익산, 1992.
22. 엄상섭, 〈素問·痿論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익산, 1997.
23. 정헌영, 〈素問·調經論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익산, 1996.
24. 김수열, 〈傷寒論 六經과 三陰三陽의 相關性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전, 1995.
25. 許 浚, 《東醫寶鑑》, 남산당, 서울, 1966.
26. 凌耀星, 《難經校注》, 인민위생출판사, 북경, 1991.
27. 朴 炅, 《入門診斷學譯釋》, 대성문화사, 서울, 1996.
28. 朴 炅, 《譯釋 瀕湖脈學·四言學要》, 대성문화사, 서울, 1992.
29. 朴 炅, 《譯釋 脈學輯要·脈語》, 대성문화사, 서울, 1996.

參 考 辭 典

1. 張三植 編著, 《大漢韓辭典, 進賢書館》, 서울, 1981.
2.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84.
3. 中醫研究院, 《中醫名詞述語辭典》, 民衆書林, 서울, 1984.
4.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高文社, 서울, 1970.
5.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中國文化大學出版部, 台北, 1985.
6. 許世旭, 《새中韓辭典》, 徽文出版社, 서울, 1978.
7. 金赫濟 金星元編著, 《漢韓大字典》, 明文堂, 서울, 1984.
8. 金賢濟·洪元植共譯, 《漢醫學辭典》, 成輔社, 서울, 1983.
9.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辭典》, 東洋醫學研究員出版部, 서울, 1985.
10. 李熙昇編著, 《國語大辭典》, 民衆書林, 서울, 1990.
11. 廣東中醫學院編 黃鍾律外一人譯, 《漢醫學名詞述語辭典》, 논장, 서울, 1987.
12. 高大民族文化研究所編, 《中韓辭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서울, 1989.
13. 中醫辭典編纂委員會, 《簡明中醫辭典》, 香港, 1979.